

서귀포 대정마을 영화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단기사회사업 실습기록



여는 글

혼밥, 혼영 등 혼자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혼자가 편하고 익숙하다 여겨 함께 살아가길 꺼립니다. ‘이웃’이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살아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컴퓨터로 해결되기에 실제 사람 간 소통할 일이 드뭅니다. 이러한 환경이 많은 사람을 혼자로 내롭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을 얻기 쉽습니다.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 우울(corona blue 1))이 그 사례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진 현대사회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이야기 들어줄 한 명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오며 가며 안부 물을 수 있는 동네 이웃이 그런 존재이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사업을 통해 이웃이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명의 아이가 기획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실습생 면접부터 기획, 준비, 실행, 감사까지 아이들의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주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2020년의 여름을 기억하려고 합

1)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연구소, 2020, 박문각)

니다. 특별히 실습생의 시각과 기획단 아이들의 시각을 함께 담았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매주 온라인 책모임을 진행하여 함께 작업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 얻길 바랍니다. 본인 힘으로 이루어낸 활동기록을 보고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멋지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글을 통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단기사회사업을 준비하는 분께 하나의 예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험한 내용을 솔직한 말로 쓴 글입니다. 부족하겠지만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의 '우동찐' 영화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실습생 최수연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줄만 알았던 사랑의 가치를 크게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 한데 누워 나누는 대화가 그 어떤 개그보다 재밌습니다. 깔깔대며 웃다 보면 결국 새벽이 훌쩍 넘지만,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할머니 맥을 좋아합니다. 그곳에선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온종일 바닥을 뒹굴어도, 냉장고를 텅 비워도… 뭘 하든 예쁜 강아지입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나비처럼 훨훨 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연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응장하게 펼쳐진 푸른 숲과 바다에서 느끼는 보송한 산들바람,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푸릇한 풀냄새와 짭조름한 바닷냄새까지. 가만히 눈을 감고 만끽하다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깊게 숨을 마시고 내뱉습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엔 소박하지만 눈부시고, 떠올리면 눈물 나게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순간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낭만에 빠진 어린아이같이 살고 싶습니다.



제주도 에코랜드에서

지수가 본 수연 선생님

저는 여러 번 영화제 기획단으로 활동해 봤지만 선생님은 영화제 활동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아도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영화제가 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다독이며 쉬면서 하자고 하시고, 놀 때는 같이 잘 놀아줍니다.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은별이가 본 수연 선생님

선생님의 사진을 볼 때부터 믿음직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쉽게 바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냅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한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문지수

2008년 6월 5일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하게 혼자 있기도 좋습니다. 반장처럼 책임감 있는 역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제 때 사회자를 맡았는데 좀 부끄러워서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화제 활동을 떠올리면 하모 체육공원 대여에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영화제라 쉬울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과정이 복잡해져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은별 이와 같이 열심히 했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대밭에서 김치

최수연 실습생이 본 지수

2019년 여름, 겨울 영화제 기획단으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과정과 방법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여 영화제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합니다. 은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거나 거들어주고, 선생님이 힘들어할 때는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강은별

제주도에서 태어난 평범한 학생입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이고 특히 낙서하기를 좋아합니다.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시원하고 예쁜 밤을 좋아합니다.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술술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도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여서 좋았습니다.



스마일 은별이

최수연 실습생이 본 은별

2019년 겨울 영화제 기획단으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 기발한 의견을 쉽게 제시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할 때에 창의력은 한껏 더 빛을 발했습니다.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영화제 안내지와 초대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포스터에 들어간 그림은 직접 그렸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은별이의 포옹과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별이의 따뜻한 진심 덕분에 마지막까지 힘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 글

석 건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학생이 방학 가운데 4~5주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대학생이 당사자와 함께 한두 가지 사업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수행하는 실제 사회사업입니다.

‘우동찐2’ 영화제는 기획단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주제로 놀이터, 골목, 컴퓨터 등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 활동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 진행하게 도왔습니다. 부모님, 마을 어른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자주성이 자라고 마을의 공생성이 생겼습니다.

2020년 여름 영화제를 더욱 특별하게 한 것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제주도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인원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실외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진행한 지수와 은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실습생이 최수연 학생도 산 설고 물 설은 곳에서 열심히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고 이처럼 책까지 내게 되었으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해도 될 것입니다.

2) 서귀포 대정마을 영화제 ‘우리 동네 찐이야.’ 줄임말

책은 기록한 사람을 성찰하게 하고 단기간 성장하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최수연 학생은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최수연 학생과 지수와 은별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초록 팀장과 신혜교 과장의 노고도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김세진 선생님과 권대익 선생님의 도움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책을 출간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축하글

지수 부모님

이번 영화제 활동을 떠올리면 먼저 지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관심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가제본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논하여 부탁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잘 지내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집에서 막내인 지수가 어린아이 인줄만 알았는데, 활동한 모습을 보니 어떨 때는 엄마보다 낫습니다.

2020년 여름의 소중한 기억을 지수와 은별이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 따뜻한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엄마는 멋지게 해낸 지수가 대견스러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석진 관장님, 신혜교 선생님, 김초록 선생님, 최수연 선생님, 그 외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지수 할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동찐’ 영화제를 준

비하느라 애쓴 지수와 친구 은별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선생님들께도 지수 할아버지로서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끝까지 사업을 완성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별 부모님

사랑하는 은별이에게.

2019년 여름, 영화제 준비위원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여러 언니들과 함께 한다고 하여 큰 걱정이 없었지만, 올해는 기획단으로 지수와 둘이서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열심히 회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구나. 척척 해내는 우리 은별이를 보니, 다 컸구나 생각이 들면서 조금 슬퍼지기도 했단다.

엄마는 은별이가 무슨 일이든 겁부터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영화제에서 잘 했던 것처럼 모르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헤쳐나가는 은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은별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사랑해!

차례

영화제 준비

전체 흐름	2
바탕 공부_「복지요결」	3
사례연구_「우리가 만든 여행」	16
사례연구_2019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영화제 기록	19
사례연구_「우리가 공유한 골목길」	20
사례연구_「영화, 이웃을 만나다.」 제1회 머내마을 영화제	23
당사자 면접	25

영화제 진행 1 : 인사하기

당사자에게 인사	30
지역사회에 인사_운영위원장님과 만남	36
지역사회에 인사_당사자와 함께	37

영화제 진행 2 :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당사자 선행연구	60
회의 준비	62
영화제 기획	64
장소 섭외	74
영화제 홍보	80
이벤트 준비	89
영화제 준비	92

영화제 이야기

최종점검	103
영화제 시작	105

영화제 마무리: 감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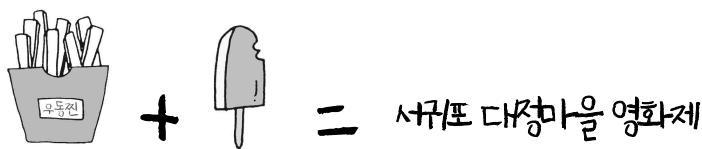
감사 준비	111
감사 진행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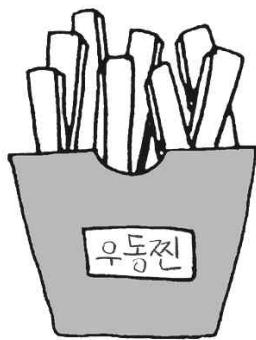
수료식

수료식 준비	120
수료식 진행	123
함께한 손길	125
마치며	127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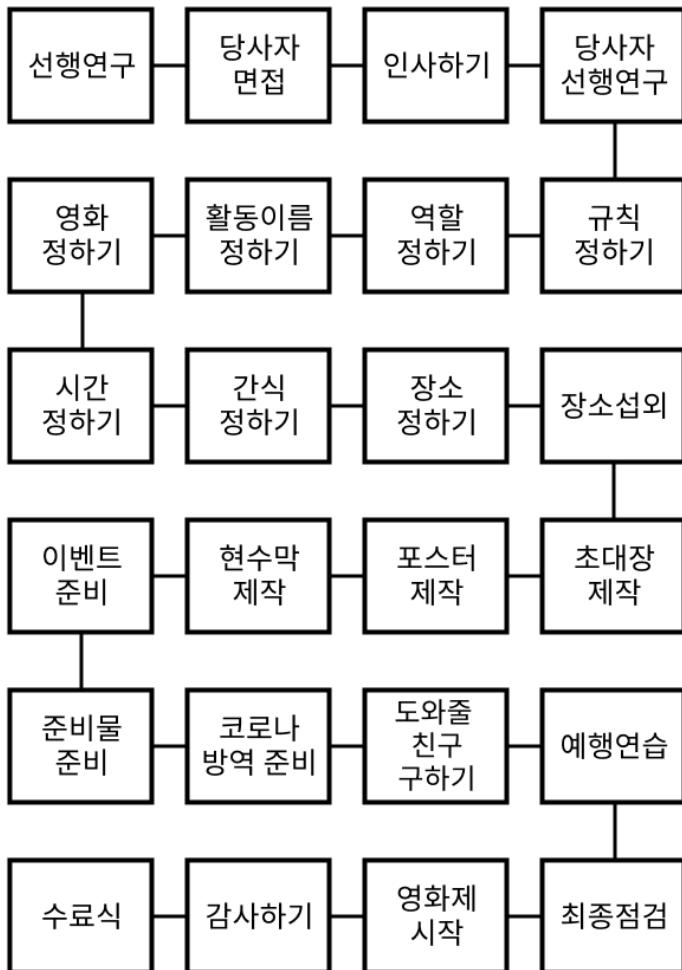
응원 글	134
맺음말	137





영화제 준비

전체 흐름



바탕 공부 「복지요결」³⁾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의 개념을 모르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정의한 사회사업을 배웠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돋는 일입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의 가치를 살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돋는 일입니다.

당사자란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사자를 대상화하기 쉬운 '대상자' 보다 '당사자'라는 이름이 더 주인 노릇 하게 합니다. 부르는 명칭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지역사회는 당사자의 지역사회와 기관의 지역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지역사회란 주로 일상 속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사람을 뜻하고, 기관의 지역사회란 주로 행정구역, 사업구역이 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사회사업은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는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입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개념'

3) 한덕연, 사회복지정보원, 2020

복지률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좋은 상태인 사회 복지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복지란 사회 속에서 얻거나 이루는 복지, 사회 속에서 흐르는 복지인 사회적 복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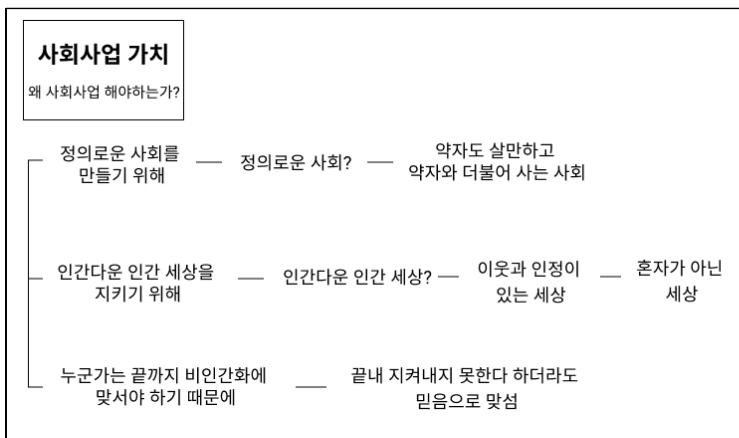
사회사업 가치

왜 사회사업 해야 할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인간 세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사업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약자도 살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인간 세상이란 이웃과 인정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역행합니다. 끝내 인간 세상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비인간화에 맞서야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가치’

당사자 삶에 대한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공생성은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자주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돋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020년 여름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하는 지수와 은별이가 주인으로 활동하여 자주성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공생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복지요결」마인드맵 '사회사업 가치'

사회사업 이상

이상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상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악자'와 '누구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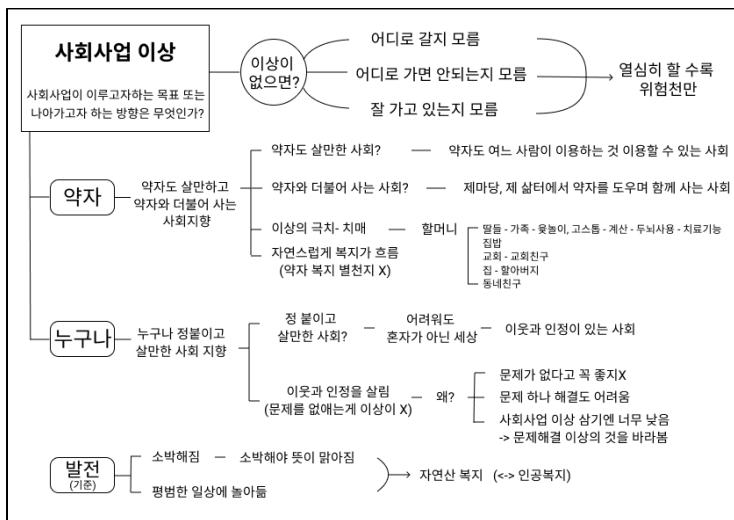
'악자'에 중점을 두면 사회사업은 악자도 살만하고 악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악자도 살만한 사회란 악자도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것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고 악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란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악자를 도우며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의 극치를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둘레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이용하시던 것 여전히 이용하시며 사는 것이 사회사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

향입니다. 약자를 구분하여 약자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지가 흐를 수 있도록 돋는 일이 사회사업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에 중점을 두면 사회사업은 누구나 정붙이고 살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붙이고 살만한 사회란 이웃과 인정이 있어 어려워도 혼자가 아닌 세상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이 사회사업의 이상이 아닙니다. 이웃과 인정을 살려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를 꼭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문제해결을 사회사업 이상 삼기엔 너무 낮습니다. 사회사업은 문제해결 이상의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회사업 발전 기준은 소박해짐과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입니다. 소박해야 처음 뜻이 맑아집니다. 소박하고 평범하게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산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요결」 마인드맵 '사회사업 이상'

사회사업 철학

옳게 하려는 정신, 원칙으로 삼는 생각이 없으면 시세에 쫓겨 흔들리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진되고 열정이 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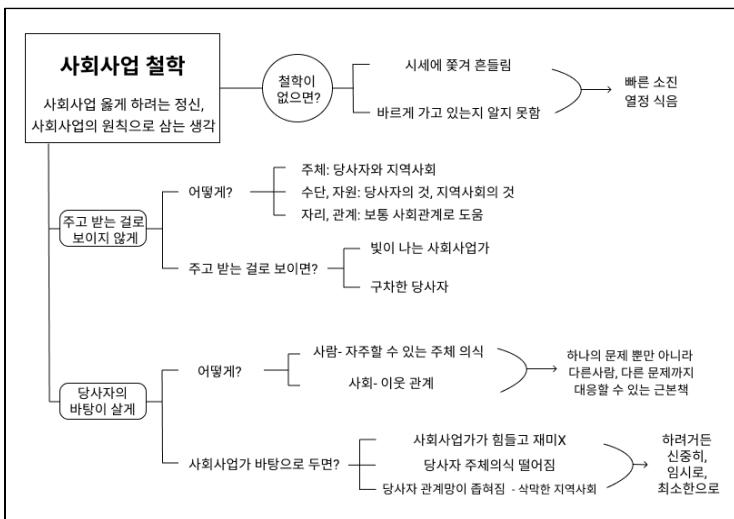
주고받는 꼴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는 사회복지사는 빛나고 받는 당사자는 구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수단과 자원을 이용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빛이 납니다.

당사자의 바탕이 살게 해야 합니다. 자주 할 수 있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사업 이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 다른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근본책입니다.

바탕이 살게 합니다.

…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자주 할 수 있는 주체 의식과 역량,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관계망, 이것이 당사자의 복지 바탕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 특히 약자와의 관계와 소통, 이것이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입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철학'

당사자의 삶에서 복지 바탕을 살리게 도와야 합니다. 사회사업가와의 관계가 아닌 본인의 삶 속의 관계망을 살려야 합니다. 활동 중 사회사업가와의 관계가 본인 삶 속 관계보다 중요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기본은 당사자 삶 속 관계임을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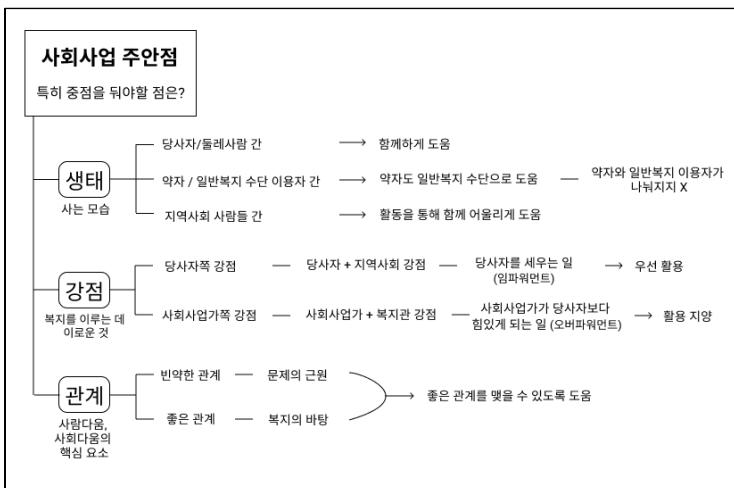
「복지요결」마인드맵 '사회사업 철학'

사회사업 주안점

사회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생태, 강점, 관계입니다. 당사자와 둘레사람 간 생태, 약자와 일반복지 수단 이용자 간 생태, 지역사회 사람들 간 생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둘레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돋고, 약자도 일반복지수단으로 도와 일반복지 이용자와 나누어 지지 않고 함께 생활하게 도와야 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중점을 두어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를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돋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복지의 바탕이 되고 빈약한 관계는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복지요결」 마인드맵 '사회사업 주안점'

사회사업 방법

사회사업,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사업 방법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 인사

당사자의 곳에 찾아가 인사하고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여 둘레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기관과 관계있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 관계 알게 되고 지역의 정서 문화 알게 됩니다. 강점이 보이고 그것으로 사회사업가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알게 됩니다.

인사는 이해 응호 협력 높이고 오해 비난 견제 낮춥니다. 사회사업가가 지

혜 열정 용기 가지고 사회사업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와의 복지 바탕이 삽니다. 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잘 알고 대답하게 묻습니다. 잘 알 수 있게 돋습니다. 어떤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합니다. 희망과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돋습니다.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게 긍정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 욕구 질문하면 못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대답합니다. 당사자가 능동적 주체이게 물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물어보고 당사자가 답하는 방식은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해 사회사업가가 계획할 것 럼 보입니다. 당사자의 일 당사자가 직접 물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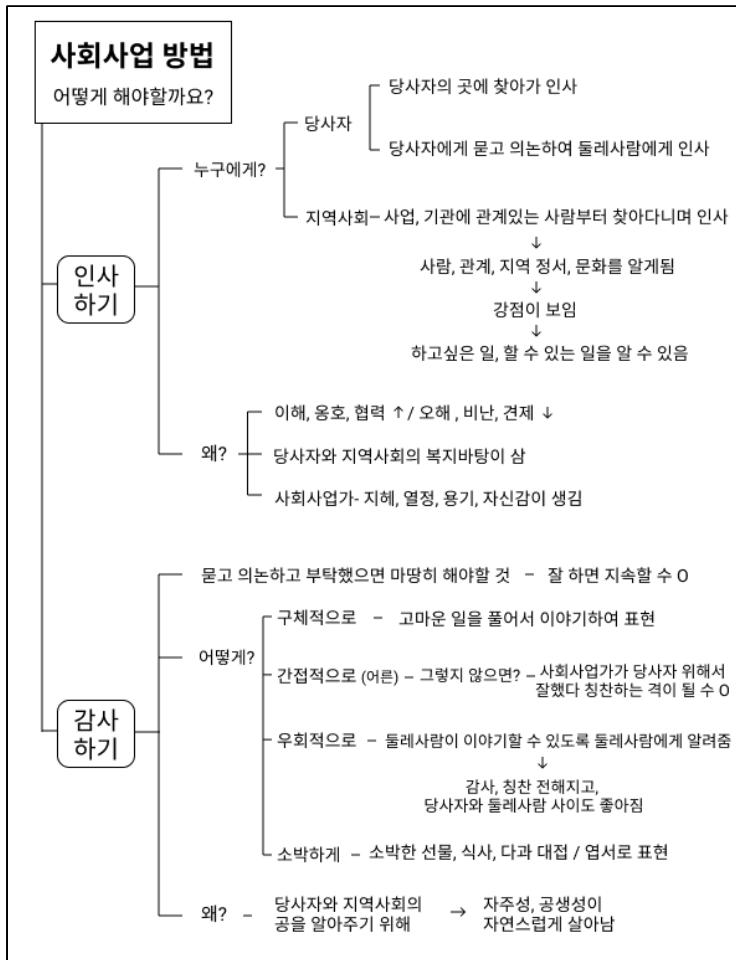
당사자의 의견을 그저 묻지 않고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다 들어줄 것처럼 물어서도 안 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해야 할 때는 예를 갖춰 정성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부탁합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합니다. 어려우면 단계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어린이 경우 본을 보여주고 같이 해본 뒤 다시 부탁합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하게 하고 같이 합니다. 대신해줘야 한다면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 이게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 모르게 부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3. 감사하기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부탁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잘하면 지속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 소개받을 수 있

습니다. 본인이 하신 일, 도움 주신 일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당사자와 지역 사회의 공을 알아줍니다. 자주성과 공생 성이 살아납니다.



「복지요결」 마인드맵 '사회사업 방법'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묻기

어떻게
질문지?

잘 알고 대답하기 — 질문하기 전에 어떤 일이고, 왜 하라고 하는지 충분한 설명 필요

희망, 강점을
이야기 할 수 있게
—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하고 싶은지 — 잘 하는 것,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대답-긍정
안그러면? — 문제, 욕구 질문 — 못하는 것, 어려운 것 대답-부정

스스로 묻고 의논하며 계획

당사자가 능동적 주체이게
—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안그러면? — 사회사업가가 계획할 것처럼 보임

당사자의 의견을 그저 묻지 않고 함께 의견을 제하시며 의논

의논하기

어떻게
질 의논?

작극 권해야 할 땐? — 예를 갖춰 정성스럽게 이야기

어려우면? — 단계를 나눠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부탁
본문을 보여주고 같이 해본 뒤 다시 부탁 (여린이)

당사자 — 당사자가 하기 부탁
— 혼자 할 수 없으면? — 같이
대신 해준다면? —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누구에게?

당사자 — 일상 속 자연스럽게 접촉,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 — 하는 걸 같이 하거나 조금 더 하기
어떻게? — 할 수 있을 때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당사자 모르게 부탁해야 한다면? — 그럴 수밖에 없는지 헤아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마인드맵, 사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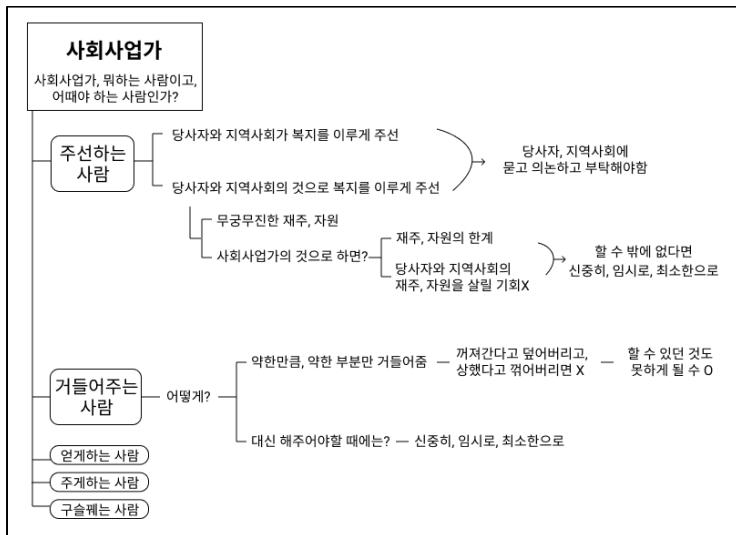
『복지요결』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찌해야 하는가?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들의 것으로 복지를 이루게 주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궁무진한 재주 자원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것으로 하면 재주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재주 자원을 살릴 기회를 잊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거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약한 만큼 약한 부분만 거듭니다. 2% 부족해서 다해주면 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주어야 할 때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복지요결」 마인드맵 '사회사업가'

복지관 사회사업

1. 복지관 정체성

사회적 복지는 사회 속에서 이루고 누리는 복지입니다. 이는 곧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관계 복지입니다. 당사자와 둘레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고 누리는 복지입니다.

복지관의 본질은 건물·공간이 아니라 사회사업 조직으로서의 '기관'입니다.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돋는 기관,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기관,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복지요결」 '복지관 사회사업'

'지역사회에 흐르는 복지'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합동연수를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관계가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모호합니다. 복지관에서의 실습으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겠습니다.

2. 지역사회사업_ 생활복지운동

안아 주기만 해도, 어울려 놀기만 해도, 인사만 잘해도, 대화만 잘해도,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문제를 예방 억지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약자도 살 만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하게 될 겁니다. 사람 사는 것 같을 겁니다. 「복지요결」 '복지관 사회사업'

세상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짓습니다. 「복지요결」을 보며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 맘 다해 안아 주고, 어울려 놀고, 서로 인사한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 안아 주기 어렵고 어울려 놀기 힘든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생활복지운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궁리하고 배워야 합니다. 점점 더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만 같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위해 지금의 신념 잘 지키며 살길 소망합니다.

사례연구 「우리가 만든 여행」⁴⁾

2018년 여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어린이 여행 사회사업 기록입니다. 실습생 정유진 선생님의 기록을 중심으로 사업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순서대로 정리된 글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만들어 간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음가짐

준비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하는 상황에서 슈퍼바이저 권대익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사업 현장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아이들 모집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획하면 돼요. 신나지요?” 55쪽

‘신나지요?’ 이 표현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흘러가든 역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정유진 선생님은 슈퍼비전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조급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모든 과정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혹여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 글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길 바랍니다.

4) 정유진 권대익,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18, 비매품

매 순간이 목표

기록 중 과정과 결과의 중요도에 대해 궁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리하던 정유진 선생님께 김세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여행 준비하는 회의가 목표를 향한 한 번의 과정 정도가 아니라, 그날 그 아이의, 그 부모님과 만남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목표라 생각해요. 아이들을 만나 포옹하고, 이름 불러주고, 응원하고, 매력을 말해주고,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해요.” 102쪽

모든 순간이 한 번의 과정을 넘어 하나의 완전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매 순간을 귀하게 여겨 지수와 은별이를 힘껏 사랑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옹과 칭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역할의 중요성

마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개는 회비가 담긴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회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10쪽

회계를 맡은 아이가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역할은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줍니다. 영화제사업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의 글은 감사와 칭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글로 잘 정리해주신 덕에 지수와 은별이에게 품어야 할 마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례연구_2019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영화제 기록⁵⁾

2019년 여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화제사업을 진행한 황어진 실습생의 기록입니다. 같은 복지관의 비슷한 사업이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보석 같은 친구들입니다. 만약 거울로 보석을 비춰준다면, 친구들의 보석은 더욱 반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영화제 우동영 친구들의 거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만 보기 아까운 보석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들 스스로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번 우리 동네 영화관을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우동영 친구들 모두가 자신에게 정말 많은 보석이 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석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반짝임을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돋는 거울 역할을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황어진 선생님의 글을 보니 깨끗한 거울이 되고 싶었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보석이 자신의 반짝임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사업기록을 읽으니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를 간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자료집.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연구 「우리가 공유한 골목길」⁶⁾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동네 영화제 실천기록입니다. 실무자 강민지 선생님의 실천기록, 사업 배경, 준비과정 등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마치 동네영화제의 안내서 같습니다. 실무자의 글이기에 사업 전체 흐름부터 세부 내용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순서대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 시작 전 분위기 만들기

영화제를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상영 전 20분 동안은 광고를 틀어줍니다. 진짜 영화관처럼 이번 88계단영화제도 특별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 온 동네를 들썩이게 한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모습이 스크린에 자랑스럽게 나타납니다. 관객들은 자기 모습 나온 걸 보시며 즐거워합니다. 88쪽

이처럼 본격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욱더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책에서

6) 강민지,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푸른복지, 2020

제시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어떤 방식이 좋을지 지수 은별과 함께 논의 해보겠습니다.

감사 방법

지난 2018년 단기사회사업을 하며 감사과정에서 고마웠던 분 모두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여나 빠진 분들은 없을지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강민지 선생님께서 적절한 감사 방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할 분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인사할지 궁리합니다. … 감사 인사를 드려야 비로소 사업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신나게 어울리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누가 드리던지 고마운 분을 빼놓지 않고 모두 찾아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4쪽

강민지 선생님의 조언처럼 목록으로 작성해두면 잊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 중 고마운 분이 생길 때마다 따로 기록해두어 아이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동네 어른 사이의 관계 또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경험에 따른 과업

경험의 정도에 따라 과업을 다르게 하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경험이 적은 아이가 쉬운 과업부터 맡고, 경험이 있는 아이는 조금 더 어려운 과업을 맡기면 됩니다. … 경험 있는 아이를 따로 만나 경험이 없는 아이들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뒤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잘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경험 있는 아이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됩니다. 146쪽

이번 영화제 기획단 지수와 은별이도 경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함께 활동을 계획할 때 강민지 선생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과업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경험 있는 아이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2년간 5개의 영화제 활동을 하며 글을 정리해주신 덕분에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활동 가운데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열어보겠습니다.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사례연구_‘영화, 이웃을 만나다.’ 제1회 머내마을 영화제7)

2018년 예술플랫폼 꿈지락 협동조합8)이 동천동 ‘머내’에서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머내마을 영화제는 마을주민이 각자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영화제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고, 만들어진 것도 없었다. 그냥 사람들의 킁짝이 잘 맞아서 물 흐르듯 일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왕년에’ 각 분야에서 잔뼈 굵은 분들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주체하지 못해 모두들 자기 일처럼 의견을 내고 직접 뛰어다녔다. 나야 그저 놀라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영화제 이름이 정해지고, 상영작이 결정되고, 포스터가 도착하고, 카드뉴스들이 배포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 공연이 기획되고 영화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푸드존이 결정되었다.

모두 우리의 의견이 담긴, 마을 사람들의 작품이었다. ‘영화를 보다. 사람을 잇다’ 꿈지락이 내건 슬로건처럼, 마치 다단계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과정. 내 마음의 한 켠을, 내 시간의 일부를 내어주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서슴없이 품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놀라웠다. 마을주민들이 만들어낸 영화제

마을주민들이 각자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제1회 머내마을 영화제를 준비합니다. 꼭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사

7) 이유하, “영화, 이웃을 만나다.” 제1회 머내마을 영화제, 미디어스코프, 2018

8) 문화예술 창작 프로젝트 사업, 문화예술품 등 공연 기획업체

업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몰랐던 이웃이 만나 인사하고 관계 맺으며 자연스러운 복지를 이룹니다.

이처럼 제가 활동하는 대정의 주민 분들도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스스로 모여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蠹의 미학, 한 땀씩 이어붙인 레드카펫

레드카펫은 또 어떤가. … 붉은악마 티셔츠부터 양말, 치마, 태권도 벨간 띠 까지 천 한 무더기가 모였다. 그 조각조각들이 그렇게 거대한 레드카펫의 ‘일부분’일 줄이야. 다 잊지 못해 영화제 당일까지 사람과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대작 레드카펫은 그렇게 머내마을 영화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천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레드카펫이 되는 것처럼 작은 손길이 모여 사회사업을 이룹니다. 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실을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만들어갈 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사업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당사자 면접

면접 준비 | 담당자 김초록

해는 뜨겁지 않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금요일 오후, 단기사회사업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지수, 은별이와 만났습니다. 면접 장소를 어디로 할지 의논했습니다. 지수가 동네에 있는 감저카페에서 면접보기를 제안하여 장소 대여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드리면 좋을지 이야기하면서 감저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계획한대로 인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화제 활동을 하는데요, 선생님 면접을 저희가 직접 봐요. 혹시 면접장소를 빌려줄 수 있으신가요?”

지수가 용기 내어 여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영업시간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면접날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면접날, 감저카페에 모여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온 최수연 학생을 환영하기 위해 은별이가 그림을 그리고 환영 문구를 꾸몄습니다. 면접 때 물어볼 질문도 미리 생각하여 적어두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면접 준비 | 실습생 최수연

드디어 기다리던 면접 날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면접 전날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담당자 김초록 선생님의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기획단이셨던 어르신께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새로운 기획단을 꾸리려고 애써주시는 김초록 선생님께 고마웠습니다.

면접 날 빠진 건 없는지, 시간은 여유로운지 여러 번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전날 김초록 선생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슨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려주신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속해있는 대정읍은 꼭 할머니 댁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이웃 간 인정 많은 동네가 그려집니다. 기계 소리가 빠지고, 새 물 사람 소리로 가득 찬 자연스러운 동네였습니다. 잔잔한 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맞이해주니 더욱 신이 난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선생님들께서 반겨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시원한 얼음물 대접해주시고 바뀐 과업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어르신 대신 아이들과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바뀐 과업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준비해주신 면접을 보려 갔습니다.

면접 진행

면접 장소인 감저카페에는 두 명의 작은 면접관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었을 텐데 환영 문구와 직접 그린 제 그림을 걸
어두고 반겨주었습니다. 초반엔 부끄러운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지수의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 스릴러, 범죄 같은 영화 좋아해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봐요.”

지수와 은별이는 만족스러운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며 다음 질문을 이
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화제 날 공포영화를 보고 싶었
다고 합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소개를 다섯 글자로 한다면?
다섯 글자 넘어도 돼요!”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질문이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궁리 끝에 여섯 글자
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름을 넣어 소개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겐 식상하고 재미없는 답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
서 소개했듯 숨김없는 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은별이가 쑥스러워하며 종이에 ‘합격입니다.’를 적어 보
여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여름이 기대됩니다. 사랑스러운 지수와
은별이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거들겠습니다.

면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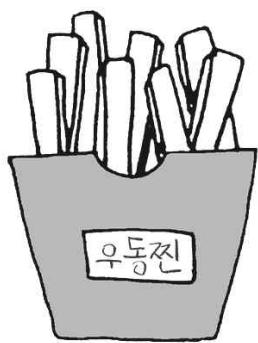
면접이 끝난 후 면접을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냉 우동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나누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서 감사와 걱정의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감사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뛰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이 참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입니다. 기대 가득 안고 시작합니다. 낭만의 섬 제주에서의 2020년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면접을 준비해주신 선생님과 면접관님 모두 고맙습니다.



면접 보는 모습



영화제 진행!

인사하기!

당사자에게 인사

첫 만남

면접 이후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라 설레고 기대했습니다. 기획단 지수와 은별이가 복지관으로 와서 근처 해안도로를 걸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인지 둘이 손 꼭 붙잡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부탁하니 걸음을 맞추어 걸어주었습니다. 팔에 길스하고 있던 지수가 다친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니 수애기 카페가 나왔습니다.

“수애기가 뭐예요?”

“쓰레기?”

아이들의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돌고래였습니다. 제가 돌고래를 쓰레기라고 추측한 덕분에 지수와 은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첫 만남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즉석 사진기로 두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하나씩 주려고 하니, 집에 가져가면 없어진다며 대신 추억을 보관해 달라고 합니다. 저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겨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영화제를 경험해본 아이들이기에, 지난 추억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묻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는 2019년 여름 활동을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황어진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잘 전해진 듯 보였습니다.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니 지수가 고민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전에 간식을 팔았었는데 공짜로 달라고 했어요.”

영화 볼 때 간식을 만들어 팔았었는데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합니다. 미리 과정을 알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영화제 활동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말한 고민을 사전회의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별명 짓기

갑작스럽게 지수 어머님 성함 맞추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별이가 힌트를 주고 지수가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신나게 퀴즈 놀이를 하다가 각자의 특징을 담은 별명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궁리 끝에 우리만의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저흰 강스방, 무기, 돌빼 입니다. 은별이는 스머프 색 옷을 입고 방귀를 뀌어서 '강(은별) 스(머프) 방(구)' 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다친 팔에 기적이 일어나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 '무(지수에게) 기(적을)' 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수 성이 문씨 이지만 우리끼리는 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는 저에게는 '돌(고래) 빼(빼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수애기가 인상 깊이 남았나 봅니다.

별명 짓기를 통해 은별이가 아이디어뱅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특징도 놓치지 않고 기발한 별명을 지었습니다. 활동 중에도 은별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지수 집에 가방을 두러 가던 중에 지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반갑게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하고 싶습니다. 우연으로 만나 인사드리니 자연스레 관계가 맺어집니다.

헤어지기 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음 모임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복지관을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여 당연하게 모임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의 모임은 편하지만 아이들과 지역사회 의 바탕을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복지관이 아닌 아이들 주변 의 장소로 정할 수 있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경청하고 동의하여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학원 근처나 공원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지수와 은별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3주 동안 함께할 생각을 하니 기대되고 신이 납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활동소개

지수와 은별이를 데리리 학원으로 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저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정해둔 시간이 있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을 인사 시간에 또 뵙길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원 근처에 도착해 연락했더니 은별이가 나와 맞이해주었습니다. 지수도 뒤따라 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회의하기로 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지수와 은별이가 동네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좋은 아이들 문구점 사장님의 저번에 포스터 붙이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동네를 소개해주니 지역사회의 관계, 지역 정서,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개해준 곳을 찾아가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신전

떡볶이, 좋은 아이들 문구점, 경로당을 지나 하모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공원 이름을 줄여서 '하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수가 무대 계단이나 벤치에 앉아 회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회의 장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화 드려 영화제 모임 중임을 알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영화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주인 되어 활동하고 이웃이 함께해서 인정 흐르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

영화제의 주인이 지수와 은별이임을 강조했습니다. 동네 이웃과 함께하면 좋은 점도 설명했습니다. 은별이가 진지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린 개미고요 선생님은 배짱이에요?”

생각한 영화제의 의도가 잘 전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저 도울 뿐 이루는 건 지수와 은별이의 몫입니다.

준비해간 일정표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일정은 함께 의논하여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1 만남

지수와 은별이가 각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룬 이전 활동에 대한 자랑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 활동 어떻게 이루어가고 싶은지 다짐 듣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는 1:1 만남이 떠올라 제안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니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먼

저 은별이와 만났습니다.

은별

조용한 상담실에 은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니 은별이도 저를 정중히 대해주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은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활동의 자랑 들었습니다. 이벤트 진행과 서빙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은별이가 진행을 맡았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팝콘 태운 이야기, 퀴즈 내고 선물 준 이야기 등을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번 활동도 전처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물었습니다.

“대사 만들기요!”

그림 그리기 뿐만 아니라 글쓰기도 좋아하나 봅니다. 그리고 보니 역할을 정할 때도 먼저 서기를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 못한 은별이의 강점이 많습니다.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여 대답해준 은별이 고맙습니다.

지수

이전 활동의 자랑 들었습니다. 영화제 사회 본 게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역할은 리더라고 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지수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지수는 구성원을 잘 이끌고 타이를 줄 아는 멋진 리더입니다.

지수가 생각하는 영화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계획하고 마지막엔 이웃들 다 모여서 같이 영화를 보는 거요.”

영화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이웃들이랑 친해지려고요!”

영화제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정을 살리는 영화제라는 걸 알고 그것에 맞게 준비 실행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의 다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획단은 두 명뿐이니 의견을 많이 내겠다고 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회의 시간에 은별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기다려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면 잘 기다려주고 잘한 일이 있다면 마구 칭찬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를 보면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강점을 놓치지 않게 눈 크게 뜨고 잘 보아야겠습니다.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낼 기회를 빼앗지 않겠습니다. 제 역할은 아이들의 것에 잠시 끼어들어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모두 지수와 은별이가 이룹니다. 충분히 그리고 남습니다.

지역사회에 인사_운영위원장님과 만남

복지관 근처 모슬포 교회 목사님이신 운영위원장님을 만나러 교회로 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다 하니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공부와 안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야 해요. 지금이 그때에요. 그거 안 하면 무시 받고 십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실습하는 중에도 꾸준히 「복지요결」과 선행연구 책 공부하려 합니다.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지식을 쌓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지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최근 코로나가 퍼지고 있으니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만날 때는 더 유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위생을 지키며 활동할 방법을 아이들과 의논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운영위원장님께서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셨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외치듯 해 주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주신 마음이 느껴져 뭔지 모를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해 주신 운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인사_당사자와 함께

인사 계획

복지관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위바위보를 통해 역할을 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서기는 은별이가, 사회는 지수가 맡았습니다. 회의 전에 규칙읽기를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여 함께 읽고 사회자 지수가 회의를 이끌어갑니다.

먼저 누구에게 인사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자주 가는 마트 약국 식당에 인사하면 좋겠다고 지수가 의견 제시했습니다. 정해진 틀보다 자유로움을 더 좋아하는 은별이는 그날 보이는 곳에 들어가 인사하고자 했습니다.

꼭 인사하고 싶은 분을 정해 인사하고, 오가는 중 생각나는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의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사할 지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안내지를 만들어가면 어때요?”

“맞아요. 주면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지수가 제안하고 은별이가 맞장구쳤습니다. 굳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척척 해내는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안내지 제작

필요한 준비물을 빌리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지수가 실무자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웃으며 반겨주시고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색연필과 종이를 빌릴 줄 알았는데 대뜸 노트북을 빌려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로 뭐해요?”

“컴퓨터로 안내지 만들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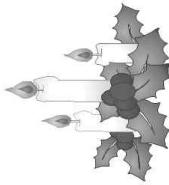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안내지를 만든다는 것에 놀랐고 저를 제외한 두 명이 의논하여 결정짓고 실행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활동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험이 있어서인지 능숙합니다. 마음껏 칭찬해주었습니다.

안내지 만드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은별이는 학교 ‘피피티’ 만들기 시간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타자도 잘 칩니다. 은별이가 안내지를 꾸미고 지수가 글을 썼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활동소개 글을 넣었습니다. 예비 관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실까 하여 예방수칙도 추가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계획했던 코로나 규칙 연구까지 한 셈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다음 날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걱정 없습니다. 잘 해낼 지수와 은별이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노트북 빌려주신 김초록 선생님, 인쇄 안내해주신 이은지 선생님, 마우스 빌려주신 홍남종 선생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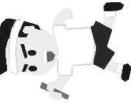
우리 동네 친구

1. 소개

날짜와 기간같은걸 다음 포스터에서 봐
주세요. 우리 동네 친구는 서부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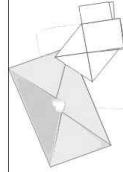


우동천은 영화제라는 활동 인데 영화제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 영화를 보면서 이웃들과 친해지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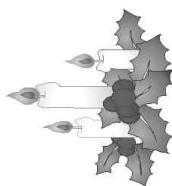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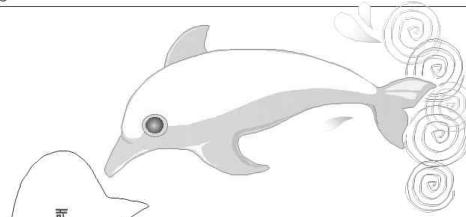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 수칙

- 1m 간격 유지.
- 2마스크는 필수.
- 3우리는 정답을 유조간 쏘용 합니다.
- 4발열 체크는 당연히 합니다
- 5손소독 꼭꼭!



오늘 봄다고래



코로나19 예방
만 걸자기면
걱정 no no

지수와 은별이가 만든 안내지

안내지를 인쇄하고 나눠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인쇄는 복지관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인사드리고 부탁하니 이은지 선생님께서 경청해주시고 컴퓨터 사용 도와주셨습니다. 김초록 선생님께서 USB 빌려주셨습니다.

노트북으로 만들어 놓았던 안내지를 복지관 컴퓨터로 옮기니 글씨체, 색깔, 모양 등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별이가 수정하고 지수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혹여나 근무 중이신 선생님들께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것 같아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냥 내가 해준다고 할까? 더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해줄 뻔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것을 빼앗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것이니, 아이들이 하게 해야 한다는 「복지요결」 내용이 떠올라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뒤에서 보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알고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연습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안내지 함께 접었습니다. 보기 좋게 접어서 드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기특합니다. 지수가 24장의 종이를 언제 다 접느냐며 걱정했습니다.

“선생님께 부탁하면 같이 접어줄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같이 하기보다 아이들이 부탁해서 심부름하는 꼴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수의 부탁으로 함께 접으니 일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한 명이라도 더 돋고 거들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도 쉽고 빨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도 같아서 빨리 끝났다며 좋아합니다.

인사 개념정리

인사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내지를 접으며 인사의 좋은 점을 소개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이해 응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인사 다니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복지 바탕이 살고 이런저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인사 자체가 복지가 되기도 합니다.

「복지요결」 '인사'

「복지요결」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가 다가와 인사하고 다음 날 또 와서 인사한다면 친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친해진 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먹던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싶고 사주고 싶을 것 같아.”

지수와 은별이가 경청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대뜸 처음 보는 친구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어떨까? 당황스럽고 인사한 친구보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덜하겠지?”

“네.”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길 바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이유가 꼭 도움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보는 친

구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고 본인을 소개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보아도 좋았겠습니다. 이웃 간 인사하고 알고 지내면 우리 영화제 목표처럼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기 쉬울 겁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지수와 은별이가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인사말을 정하자는 말에 은별이가 가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가 이상하면 부탁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첫인사를 귀하게 여겨주어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설명이 부탁을 위한 인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사말은 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사 연습

걸어가던 중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는 분마다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손녀 보듯이 웃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수가 말했습니다.

“인사하면 다 웃으시네요? 다 웃어줘요.”

저의 모습을 보고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은별이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봇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정중하게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인듯하지만 전봇대를 보고라도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습니다. 연습이 실전에 빛을 발할 겁니다.

인사 진행

아이들의 삶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수가 학생들이 많은 학원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오가며 마주치는 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시던 어르신께 인사드리니 함박웃음으로 응답해 주셨고 문 앞에 서 계시던 남자 분께 인사드리니 겨우뚱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수와 은별이가 지켜봅니다.

“인사드렸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 우린 그냥 우리 도리를 다하는 거지.”

인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걷고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둘이서 무언가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더니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생각 낸어요. 둘이 하기 힘드니까 친구 불러서 부탁해요.”

영화제 당일에 간식 서빙 등을 친구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사하러 가는 중에도 영화제를 생각해주었습니다. 이전 경험을 떠올려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지수와 은별이 고맙습니다.

변화가에 가까워지자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을 들여다보며 이웃을 살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인사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시범 보여주세요.”

은별이의 말에 번쩍 생각이 깨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부탁하기

첫째, 당사자가 하게 부탁합니다. 어려워 보이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본을 보여 주고 같이 해 본 뒤에 다시 부탁하기도 합니다.

둘째, 당사자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합니다.

셋째, 대신 해 준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 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결국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요결」 ‘부탁하기’

「복지요결」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은별이가 힌트를 주었습니다. 막연히 도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 도울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은별이 말대로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모닝글로리 사장님 찾아뵈었습니다. 정중히 예를 갖추어 인사드렸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소개하고 과업을 소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전하고 나왔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지수와 은별이에게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인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보고 바로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역할을 정하지 말고 가서 생각나는 사람이 말하자고 하여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제가 대신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CU 사장님, 백화점 사장님, 동양컴퓨터 세탁 사장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역할을 정하지 않으니 들어가기 어색하고 들어가서 눈치 봅니다. 긴장한 탓인지 말이 잘 나오지 않나 봅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다하지 못한 이야기 대신 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물으니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과정을 세분화하여 그중 어려운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했습니다.

1. 어디 갈지 정한다.
2. 들어간다.
3.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4. 자기소개한다.
5. 활동소개 한다.
6.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린다.
7.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한다.
8. “안녕히 계세요.” 인사한다.
9. 나온다.

인사를 9개의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물었더니 지수와 은별이가 활동소개부터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의 네 가지는 제가 대신하고 활동소개부터 스스로 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하고 다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문구점 가나상사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고맙게도 은별이가 먼저 노크하고 들어가 주었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은별이가 활동을 소개하고 지수가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별이가 감사 인사드리고 함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세분화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부탁하니 부담감이 덜합니다. 나오자마자 칭찬 샤워해주었습니다. 쓰다듬어주며 아주 잘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는 지쳐 보였습니

다. 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끼고 동네 두 바퀴 이상을 돌았으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 마을 인사는 여기까지 만 하기로 했습니다.

프라자 약국 약사님 찾아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크고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전보다 쉽게 맡은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능숙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인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인사를 마치고 다음에 한다면 세분화한 과정 중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씩씩하게 잘 들어가던 모습이 기억나 앞장서 들어가기 부분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겠다고 합니다.

지수와 은별이, 덤고 힘들어도 끝까지 잘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칭찬해주었습니다.

“영화제도 찐 이지만, 너희들이 진짜 찐 이야!”

칭찬해주고 빨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거부감 들었을 겁니다.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수 팔 깁스 이야기, 깁스 냄새 이야기, 지나가던 이웃집 강아지 이야기 등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하하 호호 웃으며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과업을 강요한 건 아닌지, 처음 설명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그간 공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수와 은별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돌아봤습니다. 처음 마을 인사를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음 만남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 구하려 합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부담 주지 않

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공부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마을 인사를 통해 만난 모닝글로리 사장님, CU 사장님, 백화서점 사장님, 동양컴퓨터 세탁 사장님, 가나상사 사장님, 프라자 약국 약사님 인사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인사드리려 가겠습니다. 그땐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지수와 은별이

인사 돌아보기

마을 인사로 지쳐있던 지수와 은별이의 무거운 어깨가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나 여린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오히려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아닌지, 어른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진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인사가 도움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고유의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사전검색을 했습니다.

인사(人事) 표준국어대사전

1.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
2.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3. 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인사는 사람 인(人)자, 일 사(事)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예를 표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고마움이나 칭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인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갖추어 인사했기에 이웃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기에 마을에 인정 넘쳤습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웃사촌이란 명칭이 생겼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가족이었기에 국민이 하나 되어 시련과 역경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명칭 잘 쓰지 않습니다. 이웃 인정 사라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가 퍼져갑니다. 혼자 살고 혼자 먹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죽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 부르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인사, 어렵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만날 땐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됩니다. 오고 가며 정이 쌓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수와 은별이에게 새로 알게 된 인사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과업 전에 공부해 알려줬다면 더 수월했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 다행입니다.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사과와 고마움의 선물 주고 싶었습니다. 소박하게 칼림바 연주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기죽어있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밝은 지수와 은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저런 수다 떨다가 지수가 일정표를 보며 해야 할 과업을 확인했습니다. 서둘러 하려는 모습이 예뻤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끼어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의 공부가 부족해서 너희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미안해.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선생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네!!”

지수가 대답하고 은별이가 고개 끄덕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란 말에 눈이 반짝입니다. 무언가 주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악기연주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며 칼림바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대한 선물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지만, 연주해보고 싶었던 악기라며 칼림바에

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니 조용히 집중하여 감상했습니다. 연주 후 박수받았습니다. 앙코르로 아이들이 노래 불러주고 제가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가사 찾아주었습니다. 고운 아이들의 목소리와 칼립바 소리가 어우러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잘 부르지 못해도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연주 후 지수와 은별이에게 물었습니다.

“선물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아요!”

지수와 은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뿌듯했고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중간놀이

‘인사하기’로 수고한 지수와 은별이에게 오늘 하루 마음껏 놀기를 제안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지수가 빙글빙글 뛰며 주위를 돌았습니다. 은별이, 보조개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별천지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지금도 미소가 가시질 않습니다.

지수가 영화제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당일 예정된 과업을 다른 날로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놀지 궁리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주말에 뭐하고 노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은별이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인이에요.”

제주도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산다는 말 같았습니다. 동시에 첫 모임 날 지수네 집 앞 무성히 핀 봉송아가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봉송아 물들이기를 제안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환호하며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놀지 궁리했습니다. 지수 집에 가서 봉송아를 따고 다시 복지관으로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고민하던 지수가 어머니께 여쭤본 후 본인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봉송아 물 어떻게 들이는지, 어디에 있는 무슨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지도 이야기해주셨다고 합니다. 장소 제공해주시고 방법 알려주신 지수 어머님 고맙습니다.

김초록 선생님이 퇴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수가 부탁해 차편을 얻었습니다. 차를 타려 가려는데 익숙한 차가 보입니다. 은별이 어머님의 차였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은별이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가는 길이니 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은별이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 받아주시고 데려다주신 은별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지수네 집 구경했습니다. 걸려있는 가족사진 보고 있으니 은별이가 와서 설명해주었습니다. 맞은편 집에 사시는 지수네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인사드렸더니 인사 받아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지만 편한 옷차림이라 쑥스럽다고 하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할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집 구경을 마치고 함께 봉송아를 따러 갔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라 우산을 쓰고 쪼그려 앉아 봉송아를 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아이들이 까르르 소리 지르며 웃었습니다. 우산 나눠 쓰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

어가는 아이들, 쏟아지는 비, 웃음소리, 빗소리, 꽃향기까지 자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낭만적이었습니다.

둘러앉아 봉숭아를 빵았습니다. 빵은 봉숭아 향이 어렸을 때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겹던 날을 회상하며 더욱 낭만에 젖었습니다. 열심히 빵은 봉숭아를 서로의 손톱에 올려주고 비닐장갑을 씌워주었습니다. 고무줄을 끼워 고정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발색이 더 좋아진다는 지수 어머님의 지혜까지 더해져 하나뿐인 네일아트가 완성됐습니다. 봉숭아 특성상 긴 시간 올려두어야 물이 잘 들기 때문에 장갑을 낀 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실컷 놀았습니다.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 듯 즐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신이 나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었습니다. 빨리하고, 계획대로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쉼의 역할이 큽니다. 그 힘 받고 다음 만남 때는 열심히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약 2주 뒤면 제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를 지긋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제주에 살라고 합니다. 떠날 날을 생각하면 별씨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회사업은 늘 이렇습니다. 사랑 주러 왔다가 더 큰 사랑 받아 갑니다. 지수와 은별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더 많이 안아 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서로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봉송아 따는 중



즐거운 봉송아 물들이기

두 번째 인사

지수가 끙 쉬었으니 늦게까지 회의해야 한다고 하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햄버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주면 받는 모양새 될 것 같아 고민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수와 은별이의 힘으로 얻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전에 했던 방법으로 너희들끼리 사장님께 인사드리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햄버거 사줄게요. 어때?”

지수 은별이가 고민하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앞서 세분화한 인사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 어디 갈지 정한다.
2. 들어간다.
3.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4. 자기소개한다.
5. 활동소개 한다.
6.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린다.
7.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한다.
8. “안녕히 계세요.” 인사한다.
9. 나온다.

저번 마을 인사 때는 자기소개까지 제가 대신해주었지만, 이번엔 전 과정을 지수와 은별이의 힘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없고 인사 받아주실 수 있는 때를 살폈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은별이가 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주운 동전을 갖다 드리면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는 어른을 만나길 바라여 제가 먼저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언질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때가 되어 은별이가 동전을, 지수가 안내지를 가지고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동네 사는 아이들인데요….”

지수가 먼저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기억하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은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주웠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칭찬해주시며 모금함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나누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분은 잘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감정을 읽고 태도를 파악합니다. 사장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웃으며 받아주신 덕분에 용기 내어 인사할 수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인사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아이가 아닌 어른의 영향이 컼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사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머쓱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사를 잘 받아주는 것이 인사를 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침착하게 인사해준 지수 은별 고맙습니다. 미소로 반겨주시고 고개 끄덕이며 이야기 들어주신 롯데리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수와 은별이에게 뿌듯한 경험 생겼습니다.



인사드리는 지수와 은별이

기획단 강은별 시와 그림 | 인사

인사

강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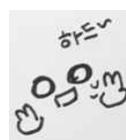


인사는 쉽다.

아주 쉽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도 않다.

어색한 기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획단 문지수 글 | 어려웠던 인사

안내지를 만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서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웠습니다. 인사를 잘 받아줄 때는 뭔가 용기가 생겼지만 거칠게 받아주면 또다시 기가 죽어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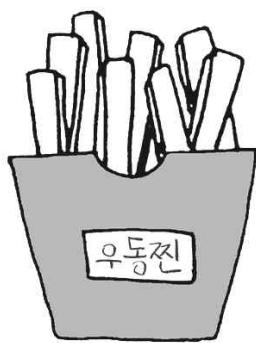
그래서 계획을 짜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은 인사 과정을 나누어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 하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계획 없이하는 인사보다 계획을 짜서 한 인사가 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롯데리아에서는 선생님 도움 없이 은별이와 둘이서 용기 있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님도 잘 받아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걸어 다닌 게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동네 분들과 인사를 해보아서 좋았습니다.

인사를 잘 받아주신 롯데리아 직원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와중에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감사장을 드리러 갔을 때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수미 직원님 감사합니다.



영화제 진행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당사자 선행연구

아이들과 함께 영화제 활동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선행연구를 했습니다. 선행연구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져 우리끼리 ‘전에 한 거 공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영화제 활동을 해본 아이들이기에, 지난 활동을 떠올려보는 일 자체가 선행연구였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편했는지, 영화제를 세분화하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오늘의 서기인 은별이가 정리해주었습니다. 은별이가 지루해하자 사회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벤트 할 때 느낌이 어땠어?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서 밀하면 돼.”

은별이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지수가 이끌어 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은별이가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지수처럼 기다려야 할 때를 잘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사무소 ‘구슬’ 김세진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웃으면서 떠나는 여행」⁹⁾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다섯 어린이가 스스로 여행을 기획 실행 감사한 실천기록입니다. 세 번의 여행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책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니 또래 친구들이 쓴 책이라며 흥미로워합니다. 목차를 본 지수가 말했습니다.

9) 김별,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2020

“우린 돈 모으기 부분 보면 되겠다.”

간식 비용을 걱정하던 터라 적절한 공부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은별이 가 소리 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돈 모으는 방법 중 바자회 부분을 보고 지수가 음료수 팔아서 돈을 모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행연구를 보고 바로 적용하는 능력이 놀랍습니다.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짜놓은 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이루어갑니다.

회의 준비

규칙 정하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지 않기’라고 규칙을 정하면 잘못이 돋보이니 잘함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라고 짓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동의하여 긍정문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1. 잘 집중하기
2. 별명 불러주기
3.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하기
4. 의견 한 가지 이상 말하기
5. 자유 시간 5분 가지기

은별이가 규칙이 많으면 지키기 힘들고 얹매이는 느낌이 드니 조금만 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소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정해두면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 은별이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건 평소랑 다른 회의예요. 다른 곳이랑 달라.”

아차! 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방식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는 활동인데 제가 개입해 바꾸려고 한 게 미안했습니다. 은별이 말이 맞습니다. 영화제 기획 회의는 다른 회의랑 다릅니다. 어른들의 틀에 끼워 맞추

어진 회의가 아닙니다. 지수, 은별이 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은별이의 말을 통해 금세 잊어버린 영화제의 의도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정한 다섯 가지 규칙 열심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역할 정하기

사전회의 시간에 맡을 역할을 정했습니다. 지수가 회의할 때 질문하고 진행해주는 사회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제가 회의내용을 기록할 서기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은 고정이 아닙니다. 회의 시작 전 가위바위보를 해서 돌아가며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기획

활동 이름 정하기

지수와 은별이가 이루는 것이기에 영화제 이름부터 의논하여 정하기 제안했습니다. 부르고 싶고,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마스크 어때요? 아님 코물영?”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영화제를 뜻하고 ‘코물영’은 코로나 물러나라 영화제를 뜻합니다.

지수가 재치 있는 의견을 쏟아냅니다.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르면 코로나 예방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해지려던 참에 은별이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동찐이요! 우리 동네 찐 이야.”

살기 좋은 동네를 은별이의 방식대로 표현했습니다. 영화제의 의도를 담아 이름 지었습니다. 지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번 영화제의 이름은 ‘우동찐’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 정하기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우리 무서운 거 볼까? 근데 어린아이들도 오니까….”

관객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영화를 떠올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제게 재밌게 본 영화를 묻기도 했습니다. 은별이가 영화 선정을 어려워하자 지수가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은별아 엄청 오래된 영화도 괜찮아. 말해봐.”

“음… 그럼 우리 짱구 ‘어른제국의 습격’ 보는 게 어때?”

“좋다! 어린이들이 보러 갔다가 어른들이 더 많이 감동하는…”

여러 후보 가운데 은별이가 제안한 ‘짱구 극장판, 어른제국의 습격’이 함께 볼 영화로 정해졌습니다. 어른, 아이 모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 영화제 취지에 잘 맞는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지수가 적극적으로 들으려 해주니 은별이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기다려주고 들어준 지수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용기 내어 의견 제시해준 은별 고맙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지수와 은별이가 기특합니다.

만약 영화제 활동을 다시 한다면 주변사람들과 이웃 분들이 영화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돋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영화제이니,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등 여러 주변사람들에게 두루 묻고 의논하여 후보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정해졌다면 이웃 분들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투표로 함께 볼 영화를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화선정을 구실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마을인사와 영화제 홍보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투표하신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제 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후 영화제 활동을 준비하시는 분 가운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참고하셔서 영화제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하기

몇 시에 영화를 볼지 의논했습니다. 조금 어둑한 저녁이 좋다고 하여 6시 30분, 6시 40분, 7시를 후보로 두었습니다. 지수가 영화 시작 전 소개와 규칙을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7시 영화 상영을 목표로 하고 6시 40분부터 입장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시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 정하기

손님들께 손 많이 가는 음식보다 간단한 간식 대접하길 제안했습니다. 미리 음식을 해둔다고 하더라도 상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은별이가 실망했습니다.

은별이에게 또 다른 제안 했습니다.

“그럼 수료식 때 은별이가 준비한 음식 요리해서 대접하면 어때?”

제안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풀린 듯했습니다. 알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은별이가 기대하던 영화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회의하고 포스터 붙이기까지 잘해준 은별이에게 고맙습니다.

요리 대접하기는 수료식 날 하기로 하고 영화제 날은 간단한 먹거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는 더 좋은 음식 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은별이를 설득했습니다.

“은별아 우리 소소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럼 담당도 다시 정해야 해.”

은별이는 간식뿐 아니라 영화제 진행을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들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민하더니 은별이네 어머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지수와 은별이, 은별이 어머님이 함께 간식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컵 피자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 있고 컵 피자는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많으니 간단한 과자와 음료가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박한 간식 준비할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는 녹을 걱정 없는 컵 피자가 낫겠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 그럼 둘 중 하나 결정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컵 피자 요리법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은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식빵 넣고 토마토소스 올리고…”

아이들과 어머님이 조금씩 양보하여 아이스크림은 빼고 컵 피자를 간식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복지률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게, 실제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는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는가? 이는 복지를 이루는 주체, 수단, 자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① 주체 :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② 수단·자원 :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이루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③ 자리·관계 : 제 마당 제 삶터 밖에서 후원자나 봉사자로 도우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도우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철학'

저를 제외하고 지수와 은별이, 은별이 어머님이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영화제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만들어준 지수와 은별이,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최종 간식이 과자, 음료, 컵 피자로 정해졌습니다. 은별이가 맨발로 뛰어 나가 춤을 춤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의 힘으로 절충안을 찾고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경험에 하나둘 쌓이는 증입니다.

은별이 어머님께서 결정된 간식의 재료를 사주셨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오시며 영화제 날 음료 시원하게 마실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이스박스도 한번 구해 봐요?”

이웃 분들에게 여쭙고 부탁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혹여나 영화제 활동이 어머님께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어머님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어유, 부담 안 돼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스스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돋고 계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한 열심 다 하여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하게 돋습니다. 이로써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생태가 좋아지게 합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주안점'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의 생태가 좋아집니다. 지수네 부모님, 은별이네 부모님이 함께해주십니다. 부모님이 잘 아시는 이웃 함께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지수와 은별이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볼수록 신기합니다. 할수록 칭찬 감사 늘어납니다.

장소 정하기

어디서 영화를 보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이전 경험 때문인지 유력한 후보로 복지관을 두었습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영화제를 하는 것이나 원래 이웃이 있는 곳에서 보는 게 더 좋겠다며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복지관도 지수와 은별이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지관을 후보로 두고 설득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의논 과정이 다른 부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더는 저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의논하여 복지관에서 영화제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한다.
2. 생각했던 계획이랑 너무 다르다.
3.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내심 복지관이 아닌 다른 장소를 알아보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영화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은 복지관에서의 영화제를 생각하고 구상했나 봅니다. 그 때문에 계획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정리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영화제사업 담당자이신 김초록 선생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찾아뵙진 못하고 통화로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 걸기 전, 제가 먼저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김초록 선생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지수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이 불가하여 영화제를 열 수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장소 선정 실패에 풀이 죽은 지수와 은별이가 말합니다.

“나가요. 우리. 일단 나가요!”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잠시 회의를 접어두고 아이들과 그네 타며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오픈 채팅방 영화제 어때?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영화 보는 거야.”

“오 대박! 온라인 영화제?”

은별이의 한마디와 지수의 맞장구로 그네 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은별이는 역시 아이디어뱅크입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결국 온라인 영화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의견을 많이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어 고마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져서 가까이에 있는 정자로 회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정자에 앉으면 하모체육공원이 보입니다. 지수가 빤히 공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하체¹⁰⁾에서 해요! 무대 위에 빔을 올려놓고 벽에다가 쏴요. 쏠 테 없으면 벽에 하얀 천을 붙여요.”

회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기발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수의 말을 들은 은별이가 정자에서 음식을 팔자고 말했습니다. 물꼬가 트이자 상자에 앉아서 보기, 미니 빙수 수박 화채 팔기, 쓰레기통 설치하기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정자 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회의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놀라운 창의력을 보았습니다. 첫 회의 날 은별이가 말했던 아이들만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회의 진행 능력이 대단하다며 칭찬해주었습니다. 지수가 으쓱해 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선배 클래스~”

지수와 은별이가 뿌듯해하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은별이 어머님께서 태우려 와주셨습니다. 뒷자리에 셋이 나란히 앉아 회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간식으로 튀밥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항상 교통편 제공해주시는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10) 하모체육공원 줄임말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아이들과 친구 맷어 행복합니다. 은별이가 75세까지 대정에서 지내라고 해주었습니다. 복지관에 취직하라고 합니다.

대정은 제게 꿈의 동네입니다. 매 순간 말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자연부터 사람까지 지금껏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인정 살아있습니다. 혹여나 잠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정이 있다면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와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석 같은 동료와 존경하는 선생님까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

○ 오늘 해야 할 것	서부 설득
1) 영화 선정 ←	1) 우리들 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한다.
2) 시간 장소 정하기 ↗	2)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너무 다르다.
3) 영화제 입장 짜기 ↘	3) 이유가 우리를 설득 안해준다.
4) 부탁하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왕국 2 / 6개월이 지난 후 - 국제시장/ 선생님 추천 - 굿다이어 / 나온지 오래 되어서 - 징구 극장판 어른 제국의 습격/ 어른들도 재밌어 해서 - 미래의 미래이/ 보고 싶던 거여서 - 도라에몽 극장판 불링크 비약이/ 재밌어서 	
<p>우리가 볼 영화: 징구 극장판 어른 제국의 습격</p>	
○ 시간 장소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 장소 - 	
1) 6시 30분	1) 서부 4)
2) 6시 40분	2) 하모 카페 5)
3) 7시	3) 6)
<p>※ 1간: 6시 40분 / 6시 40분에 놀라서 20분을 우리 소개하고, 규칙 말하고 7시에 영화를 틴다.</p>	

지수가 작성한 회의록

장소 섭외

섭외 준비

하모체육공원에서 영화제를 열면 좋겠다던 지난번 회의에 이어 어떻게 체육공원을 빌릴지 의논했습니다. 하모체육공원 관리자를 알기 위해 지수가 아버님께 전화 드려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계에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읍사무소에 전화 드려 부탁하기로 하고 전화 대본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은별이가 회의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수가 은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회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뭐 해야 해?”

“인사해야 해.”

“그렇지 잘하네. 내가 다 말하고 싶지만, 너도 말해. 지금 머릿속에 가득 한 거 한 개라도 말해봐.”

지수가 혼자 하지 않고 은별이에게 묻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수용하거나 조금 변경하여 대본에 정리해주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인사말, 영화제 소개, 전화 목적 등을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지수를 보고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할게.”

대본을 보고 읍사무소에 전화 걸어 이야기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해주었

습니다. 고맙고 기특합니다. 반응에 따른 대답도 준비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우리 정중하게 하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지수와 은별이가 정중히 인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용합니다. 거절하셔도 마지막까지 예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 모습이 예쁨니다.

섭외 진행

대정읍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자치팀의 번호로 전화 걸었습니다. 스피커로 통화하며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통화음이 울리자 셋 다 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읍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거기 읍사무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하모체육공원 대여에 관한 말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은별이가 차분하게 대본을 보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인사드리고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영화제에 대해 들으시던 직원 분이 참여 인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해하며 은별이가 지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수가 이어받아 아직 정해진 참여 인원은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스크

린과 장비에 관한 질문 등 여러 질문이 들어오니 지수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어받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못다 한 말을 전했습니다. 직원분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팀장님과 의논하여 다시 전화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직접 읍사무소에 가기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이 담당자라면 가서 인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 더 잘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

지수와 은별이가 동의하여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읍사무소에 전화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별이가 김초록 선생님께 차편을 부탁드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차로 이동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읍사무소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부탁해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의논해본 결과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개한 코로나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해주셨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이들과 뛰며 환호했습니다. 읍사무소까지 태워주려던 김초록 선생님은 소식을 듣고 웃으시며 다시 주차하셨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스크림 파티 열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며 성공을 즐겼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던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진짜 대단해요!”

아이들이 자신을 기특해했습니다. 해냈다는 뿌듯함과 스스로 했다는 뿌듯함 느낌니다. 그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고 이게 사회사업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른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일에 도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를 보고 도전을 배웁니다.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선 뛰어들어야겠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배운 용기, 언젠가 인생에 적용하길 기대합니다.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영화제에 대해 의논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모체육공원에서 활동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저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지수는 고민하고 아버지와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내용 전달해주었습니다. 은별이와 함께 의논해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민한 지수에게 영화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영화제에 대한 열정 가득합니다. 영화제를 소중히 여겨주는 지수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고민해주신 지수 아버님 고맙습니다. 영화제,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전기사용 부탁

지수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모체육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중 전기사용이 고민되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을 실행시켜야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읍사무소에 전화해 전기사용이 가능한지 여쭈었습니다. 논의 후 연락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용할 수 없어보였습니다. 전기 없이 영

화를 상영할 수 없기에 걱정됐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하는지, 옮기게 되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발전기를 구해야 하는지, 어디서 구할지 등 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껏 풀이 죽은 지수와 은별이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길 제안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회의를 잠시 접어두고 일상이야기로 머리를 식혔습니다. 금방 회복하는 아이들에 비해 저는 한동안 축 처져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수와 은별이가 저를 걱정해주었습니다.

복지관에 돌아와 김초록 선생님께 영화 다운로드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힘으로 직접 구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당장 다음 주가 영화제라 부탁드릴 수 있는 가까운 분께 부탁드렸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니 아이들이 영화에 관심 가졌습니다.

“조금만 보면 안 돼요?”

10분 정도 영화를 보기로 하고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명하게 있었습니다. 뇌가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 번에 해야 할 때가 오면 잠시 사고를 멈추려 하는 저의 약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필요한 누군가를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번엔 지수와 은별이가 제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풀 죽어있는 저를 보고 안아 주고 손잡아주었습니다. 토닥여주었습니다. 매우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꼭 때 묻지 않은 새하얀 구름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아름답고 무더운 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은별이의 토닥임 잊지 않겠습니다. 지수의 감사 문자 기억하겠습니

다. 사랑 듬뿍 받았습니다. 지수와 은별이 덕분에 다시 기운 차립니다.

약속한 10분이 지나고 다른 과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마침내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덕분에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장소를 섭외하는 동안 멋진 리더의 모습 보여준 지수 고맙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내준 은별 고맙습니다. 하모체육공원을 대여하기 위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주신 지수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의논하여 다시 전화해 주신 읍사무소 주민자치팀 직원 분 고맙습니다. 차편으로 도움 주시려 하신 김초록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번 안전하게 데려다주시는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당사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 했더니 절로 감사할 분 생깁니다. 마지막까지 「복지요결」의 사회사업 방법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이웃 간 정 흐르는 사회사업 즐겁습니다.



읍사무소에 전화 중

영화제 홍보

초대장 제작

코로나 생활방역 기준이 행사참여 인원 30명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지 의논했습니다. 지수가 초대장을 30장만 만들어 표처럼 이용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듣고, 초대장은 있지만 참석하지 않을 상황을 걱정하며 은별이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대장은 많이 주고 번호표를 30개 만들어서 입장 받으면 어때?”

지수가 은별이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터와 초대장을 자유롭게 전하되 선착순으로 30명만 입장 받기로 했습니다. 총 포스터 8장 초대장 50장 번호표 30장을 만들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간식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제공해 주고 두 번째부터는 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먹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음식 무료이용권을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틀을 만들어주면 은별이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힘들면 바꿔서 하기도 했습니다.

만들던 중에 은별이가 기발한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복권처럼 당첨과 꽁을 만들어 한 번 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재미를 주자고 했습니다. 동전으로 긁으면 당첨인지 꽁인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은별이가 종이 위에 글자를 쓰고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동전으로 긁었습니다. 종이가 뜨거나 뜯어져 나갔습니다. 의지의 은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빌려와 재시도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쓰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테이프 위에 수정테이프를 발랐습니다. 동전으로 긁어보니 미끄러운 테이프 덕분에 종이 손상 없이 수정테이프만 떨어져 나가고 글자는 깨끗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또 한 번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지수와 제가 아낌없이 칭찬해주었습니다. 신이 난 은별이는 테이프 더 구하러 뛰어갔습니다.

완성된 번호표와 음식 무료이용권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맡길게요. 부탁”

익숙하게 부탁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자연스럽게 부탁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일이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요결」 ‘당사자 중심’

영화제 활동은 아이들의 일이고 아이들이 했다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심에서 주인 노릇 하고 주인 되었습니다. 「복지요결」 방식대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주인 되어 준비하고 부탁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1	11	21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2	12	22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3	13	23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4	14	24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5	15	25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6	16	26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7	17	27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8	18	28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9	19	29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10	20	30	1회 음식 무료 이용권

권 이용 표지와 음식 무료 표지

포스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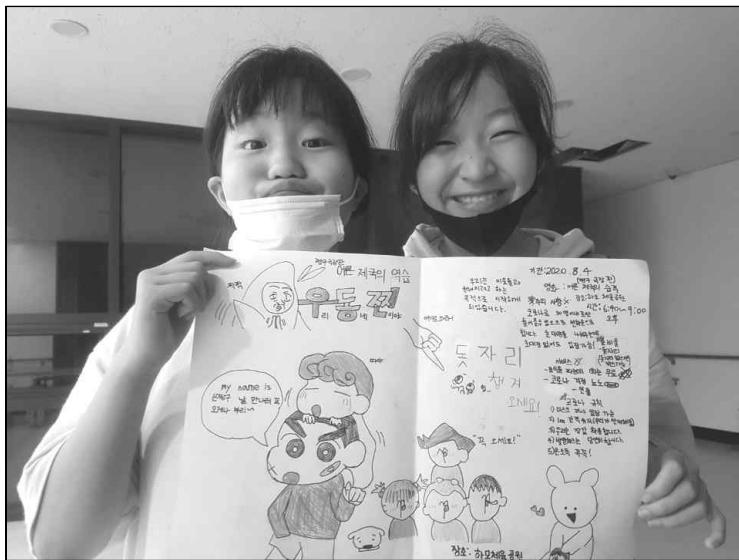
은별이는 그림을, 지수는 글을 담당하여 영화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의논하여 기간, 함께 볼 영화 제목, 주의사항, 이벤트 등을 들어갈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포스터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만든 초대 포스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과 시간, 장소 등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은별이가 제목을 크게 적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전보다 전달력이 좋은 포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지 않습니다.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의논하지 않고 맡겨 버리면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이나 기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줍니다. 때때로 살피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처사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일을 미루는 꼴로 보이거나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지요결」 '잘 부탁하기'

충분한 경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야 할지 사회사업가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사업 하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영화제 포스터와 함께

포스터 부착

만들어 둔 포스터를 부착하려 갔습니다. 김초록 선생님께서 차로 데려다 주신 덕분에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화제 장소인 하모체육 공원에 갔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중 어르신 한 분께서 관심 가지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니 부끄러운지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를 대신하여 어르신께 영화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코로나 걱정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코로나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날짜와 시간 다시 물

어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영화제 당일 날 어르신을 뵙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지수와 은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본을 보여줬으니까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지수랑 은별이가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 어려우면 같이 해줄게.”

아이들이 제안을 받아주고 다음부터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해줍니다.

자주 가는 편의점에 포스터 부착 부탁드리러 갔습니다. 은별이가 씩씩하게 앞장서주었습니다. 인사드리고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영 영화에 대해서도 여쭤봐주셨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와 초대장 붙였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포스터 수거하러 오겠다고 약속드리고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온누리 빵집, 파리바게뜨 빵집, 마트 앞 전봇대, 편의점 CU, 대정서초등학교, 복지관에 포스터 부착했습니다. 인사 받아주시고 부탁 들어주신 온누리 빵집 사장님, 파리바게뜨 직원 분, 편의점 사장님 고맙습니다. 포스터 부착 함께해주신 김초록 선생님 고맙습니다. 활동 후 감사 인사 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부탁하기

첫째,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합니다.

셋째,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고 사람 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복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방법'

둘레사람에게 부탁하니 자연스럽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니 부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복지를 이룹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수와 은별이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안겼습니다. 고마운 마음 전하니 토닥여주었습니다. 복지관에 돌아와서
도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에 문자 보내니 아이들도 감
사하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고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별써 헤어질 날 걱정됩니다. 새하얀 구름 같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
이 큰 복입니다. 복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잘 거들겠습니다.



포스터 부착 부탁드리기

현수막 제작

‘선생님, 통화 가능할까요?’

이른 아침에 은별이 어머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영화제 관련하여 의논 할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별이가 집에 돌아가 진행 과정 말씀드렸나 봅니다.

전화 드려 스크린과 현수막을 어떻게 구할지 의논했습니다. 지금까지 나 눈 의견 말씀드렸더니 현수막 가게를 운영하시는 지인 분에게 현수막 천 부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폐현수막을 여러 겹 겹쳐 연결하면 스크린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현수막 뒤에 글씨나 모양이 비칠 수 있으니 미리 해보기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지수와 은별이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이웃이 함께하는 영화제임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은별이 어머님께서 현수막 천과 스크린이 될 흰색 천을 구해주셨습니다. 현수막 가게 사장님께 부탁하여 현수막 천을, 동네 이웃에게 부탁하여 흰색 천 구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영화제 활동이 지역사회 중심이 되게 도와주신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주말에 모여 현수막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함께하려고 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지 의논했을 것입니다. 만드는 동안 관계가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오가며 친구 부모님 뵙고 인사드렸을 것입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은 주로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록이나 행정 사무를 더할 뿐입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방법’

아이들의 생태, 강점, 관계가 삽니다. 아이들과 친구들 사이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사회사업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복지요결」의 내용과 들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감탄 하며 기록할 뿐입니다. 영화제 활동이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 기쁩니다.



친구들과 만드는 현수막

이벤트 준비

공연 준비

풍성한 영화제를 위한 공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펫 공연할까요? 트럼펫이 없구나… 아, 부탁하면 되겠네!”

트럼펫은 지수와 은별이가 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배우고 있는 악기입니다. 지수가 의견을 내고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은별이가 트럼펫을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난 될 것 같은데? 그냥 부탁해보는 거지.”

지수가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수는 부탁을 쉽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부딪혀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악기가 상할 수 있어 트럼펫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해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볼수록 대단한 지수와 은별이입니다.

다른 공연을 고민하던 중 은별이가 캐릭터 목소리 흉내 내며 개인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수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객들한테 장기자랑 하게 하자! 개인기 하면 소소한 간식 같은 걸 주는 거야.”

둘만의 무대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채우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하 호호 즐겁게 이웃 인정 나누는 사람들 그려집니다. 그만큼 영화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 준비

손님들께 대접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지수가 음료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선물을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은별이가 아이들에겐 아이스티가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스티와 커피를 팔아 선물 살 경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돈 모으기

하나. 여행 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 대략 알아보고 모을 금액을 정하자.

둘. 돈 모을 방법을 생각해봐. 바자회, 용돈 달력 만들기, 부모님께 설명회하고 응원의 글과 돈 받기 같이 다양한 방법이 많아.

셋. 정한 방법대로 돈을 열심히 모아, 중간점검을 해도 좋아. …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 용돈 기입장을 적어봐. 공동의 비상금도 마련해놔야 해.

「웃으면서 떠나는 여행」

선행연구를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소박한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에 없던 바자회를 준비하고 실행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궁리했습니다. 선물로 지수와 은별이가 만든 팔찌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 가위, 라이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에 소박합니다. 직접 만들기에 소중합니다. 팔찌를 낀 사람을 보면 동네 이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안하기 전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관 실습생과 선생님들께 팔찌 만들어 선물하고 아이들이 오면 끼고 있어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모두 같은 팔찌를 끼고 있으면 호기심 생기고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만나 팔찌 자랑한 후 깜짝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듭합니다. 선물 받은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쑥스러워하며 좋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되어 영화제 손님들께 팔찌 선물 드리기를 제안했습니다. 생각해둔 팔찌의 의미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땐 시큰둥했지만 담긴 의미를 들은 후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사업가가 제안하는 방법인가 봅니다. 설득해야 한다면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은별이가 만든 팔찌

영화제 준비

준비물 준비

끼니 거르지 않도록 김초록 선생님께서 라면을 사주셨습니다. 덕분에 배부른 한 끼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영화제에 필요한 준비물 의논했습니다. 스크린, 빔프로젝터, 전기 릴선, 스피커, 책상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아버지께 부탁 전화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저녁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지수가 자랑하듯 아버님과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방범대 이신 아버님께서 영화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가 대장이라고 필요한 거 다 말하래요!”

스크린, 빔, 팝콘 기계 등 아버님께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지수와 아버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활동을 아버지로서 돋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 생길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도움 주시는 지수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코로나 방역 준비

“마스크 안 끼고 온 사람 위해서 종이행주로 만든 마스크 줘요.”

지수가 제안해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든 종이행주 마스크를 준비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로 했습니다.

“열 재고 종이에 적어야 해요?”

지수의 질문에 코로나 출입명부 작성은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여 체온 측정 후 명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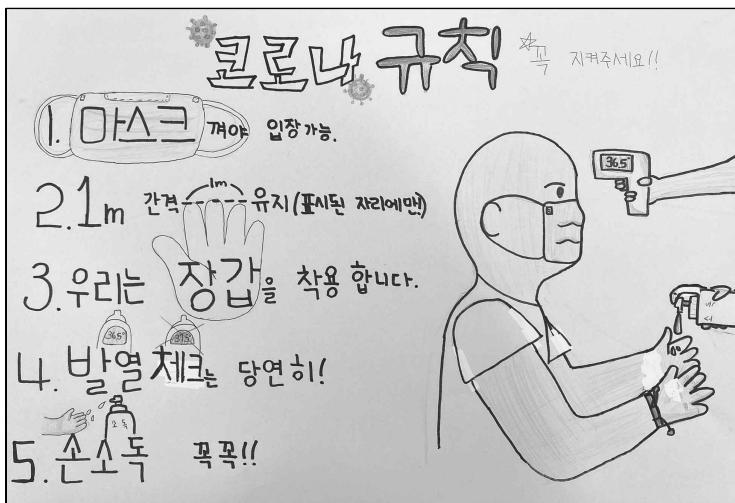
원활한 방역 진행을 위해 입구를 한 곳으로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그재그로 좌석 배치하기, 음식 먹을 때 제외하고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등 예방 수칙을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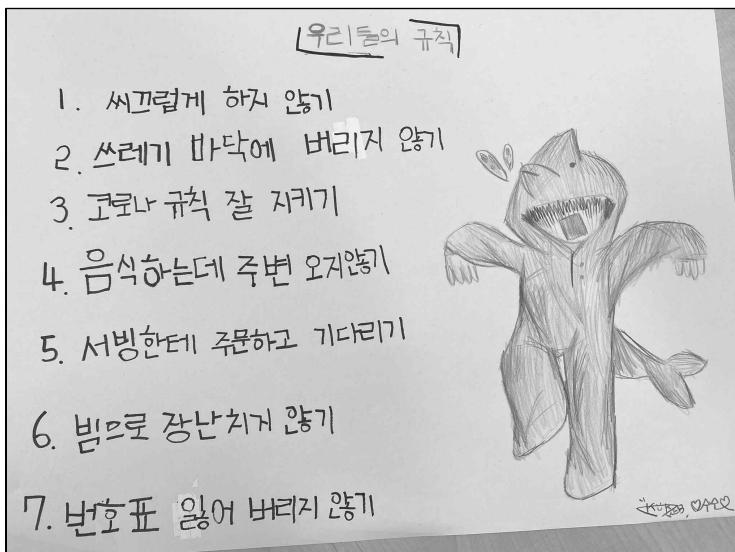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 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소 코로나 예방수칙 교육을 받은 지수와 은별이가 의논하여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규칙 포스터 제작

코로나 규칙, 우리들의 규칙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코로나 규칙을, 은별이가 우리들의 규칙을 맡았습니다. 즐겁게 만드는 지수의 모습을 보고 지루해하던 은별이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좋은 점을 보고 배웁니다. 서로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영화제 코로나 규칙



영화제 우리들의 규칙

도와줄 친구 구하기

영화제를 도와줄 친구에게 전화하여 부탁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우동영¹¹⁾’ 같은거 또 하거든? 근데 우리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너랑 다른 애들한테 부탁할 건데 할래? 8월 3일이랑 4일 6시 쯤이야.”

편한 친구라 그런지 대본을 짜지 않아도 곤잘 말했습니다. 부탁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이런 어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친구 많은 동네에서 이루지 못할 것 없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친구 세 명이 예행연습부터 도움 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기대됩니다. 함께하기로 한 희선 미경 민희 유경 고맙습니다.

역할분배

영화제 때 맡을 역할을 정했습니다. 도와줄 친구들의 역할도 함께 정했습니다. 정해진 역할을 이야기하고 조율했습니다.

첫인사부터 소개, 규칙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은별이가 춤추며 등장하기 제안했습니다. 은별이가 춤추며 인사한 후에 사회자 지수가 소개하고 규칙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이건 어때? 마지막에 요리를 맡은 ○○○입니다. 소개하는 거?”

이제 은별이가 지수를 “언니!” 하고 부르면 또 어떤 멋진 아이디어 제시

11) ‘우리 동네영화제’를 줄인 말

해줄지 기대됩니다. 영화제를 준비한 기획단과 도움 준 친구들이 함께 박수받을 수 있는 좋은 의견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박수 보내는 정겨운 모습이 상상됩니다.

은별이는 실전에 강합니다. 영화제가 다가오니 멋진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지수가 놓치지 않고 은별이를 칭찬해주었습니다. 칭찬받은 은별이는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인사말 부탁

관장님께 인사말 부탁드렸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시간 물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인사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탁 들어주신 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회의

약속시간보다 더 오래 남아 회의하고 의논했습니다.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의 영화제가 되니 회의가 쉽게 진행됩니다. 공연 및 안내 준비, 세부 일정, 일정별 역할 정하기, 준비물 의논 모두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대로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회의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순서 계획 중요치 않았습니다. 준비물 의논하다가 공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부분 알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끼어들지 않아도 회의 잘 진행됩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간 방해됩니다.

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방식대로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한 명의 관객으로서 ‘우동찐’ 영화제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행연습

지수와 은별이가 영화제를 도와줄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수 은별 희선 민희 유경이 모였습니다. 함께 만든 현수막을 펼쳐보면서 교장 선생님께 포스터 부착 부탁드렸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막도 학교에 달라고 하셨다면 뿌듯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현수막 글자를 좀 더 진하게 하면 좋겠다며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원 조언해 주신 대정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북적북적 다섯 명이 모여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역할을 분배해주었습니다. 지수가 민희에게 현수막 글자 수정을 부탁했고, 은별이가 희선이와 유경에게 메뉴판에 가격을 적어주길 부탁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는 필요한 준비물을 이은지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전기 릴선, 전자레인지, 손 소독제, 체온계, 책상, 마스크테이프, 노끈, 코팅 부탁드렸습니다. 이은지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가 잊지 않도록 받아 적었습니다.

영화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 일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놓친 준비물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1. 입장- 빌열 체크, 팔찌 무료쿠폰 제공

2. 촉석 - 마스킹테이프로 표시된 자리에 앉기
3. 사회자 인사
4. 관장님 인사말
5. 사회자 설명 - 영화제, 규칙설명
6. 영화관람 - 간식 서빙
7. 역할소개 & 단체인사 - 커튼콜, 방명록 작성 부탁
8. 단체 사진 - 현수막 앞에서 모두 함께
9. 방명록 작성
10. 뒷정리

무대를 풍성하게 해줄 효과음과 노래를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친구 민희에게 효과음과 노래를 담당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희가 미디어 담당을 맡았습니다.

지수네 집에서 스피커와 빔프로젝터, 마이크를 가지고 하모체육공원으로 갔습니다. 다섯 명이 힘을 합치니 일이 쉽게 진행됐습니다.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만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신 이웃 어른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과 영화 제목 물어보셨습니다. 은별이가 답해드렸습니다. 몰랐던 이웃을 알게 되고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예행연습을 하니 영화제가 다가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함께해준 희선 민희 유경 고맙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합니다. 잘 이끌어 준 지수 은별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가지 함께 해주신 김초록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화제 당일도 돋겠다 말씀해 주신 은별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이미 성공입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주체가 되어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영화제 잘 누리고 함께 해주신 이웃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잘 거들겠습니다.



음향 조절 중인 아이들

부탁은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부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할 때는

기분이 좋다.

의논할 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에

하나만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을 잘 지킬 땐 좋았다.

쉬는 시간 5분 갖기 규칙



기획단 문지수 글 | 부탁 부탁 부탁

우리는 의논하고 묻고 부탁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탁! 영화제 하면 부탁이 딱 떠오를 만큼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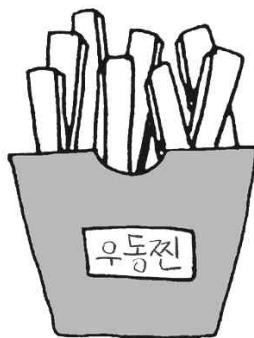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탁은 장소 빌리기입니다. 원래 영화제는 복지관에서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하여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식힐 겸 하모체육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제 장소로 하모체육공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를 빌리려면 어떻게, 어디로 전화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이런 일을 잘 알 것 같아 전화했는데 아빠께서는 읍사무소에 전화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밀할지 계획을 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써도 된다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하여 의논해본 결과, 드디어 원하는 답을 말해주셨습니다. 하모체육공원을 빌려낸 우리가 매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도움을 준 아빠, 저희 말을 들어주신 읍사무소 직원님 감사합니다.



영화제 이야기

최종점검

드디어 영화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도와줄 친구들과 함께 지수 은별이가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친구 희선이 어머님께서 사주신 간식을 먹으며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역할점검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세분화된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리 담당 미경이, 안내 담당 희선이, 서빙 담당 유경이, 미디어 담당 민희. 사회자 지수, 간식 총괄 은별이까지. 6명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간식 점검

은별이 어머님과 은별이가 미리 컵 피자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재료를 미리 손질했습니다. 준비해준 덕분에 주문이 들어오면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 점검

지수가 간식 나를 때 사용할 쟁반을 챙겨왔습니다. 은별이 어머님께서 지수네에서 아이스박스를 빌려 와주셨습니다. 준비물 리스트를 보며 빠진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준비물 리스트〉

스크린, 빔프로젝터, 스피커, 전자레인지, 아이스박스, 전기 릴선, 멀티탭, 마이크, 책상, 마스킹테이프, 간식 재료, 음료, 접시, 포크, 컵, 장갑, 마스크, 손 소독제, 채온계, 방문자 명단 표, 휴지통, 가위, 테이프, 전지, 유성 매직

모든 준비물을 챙겨 하모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나르기, 장비 세팅하기, 마스킹테이프로 앉을 자리 표시하기, 나눠드릴 팔찌와 번호표 준비하기 등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켜보시던 동네 어르신께서 스크린 설치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건 내가 기술자야!”

본인 일처럼 두 팔 걷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수 아버님께서 빔프로젝터 손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고 스크린 천이 얇아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걱정하던 가운데, 은별이 부모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곧장 마을 리 사무장님께서 이동식 스크린 빌려오셨습니다. 덕분에 선명한 화면 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가 끝나니 어느덧 관객들과 약속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영화제 시작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지수가 영화제의 막을 열고 관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수가 코로나 규칙과 우리들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영화가 아닌 아이들을 보는 것이 더 재미있으신가 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영화 상영 중 지수가 간식 주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걱정했습니다. 영화를 잠시 멈추고 양해를 구한 뒤 설명해 드리기를 제안했습니다. 민희가 영화를 멈추고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관객들을 찾아가 준비한 메뉴판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주문서를 작성하여 요리 담당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리 담당이 음식을 준비하면 서빙 담당이 주문하신 분께 가져다드렸습니다. 미리 역할을 정해둔 덕분에 일이 단계별로 척척 진행됐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다시 주문하려는 관객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아이들이 소식을 듣고 뿌듯해했습니다. 특히 컵 피자를 제안한 은별이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예쁜 미소가 피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에도 지나가는 주민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관람하

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영화제라는 말을 듣고 칭찬 격려해 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모두 함께 현수막 앞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종이에 영화제 방명록도 남겨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며 영화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행복해했습니다. 몸은 땀을 흘렸지만, 마음은 여유 넘쳤습니다.

친구들 역할 정해주고 멋있게 사회 봄준 지수 고맙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맡은 간식 책임지고 만들어준 은별 고맙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별이 어머님, 지수 어머님 고맙습니다. 직접 오셔서 장비 문제 해결해 주신 은별이 아버님, 지수 아버님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보러 와주시고 따뜻한 인사말 해주신 관장님 고맙습니다. 장비 나르기부터 정리 까지 도와주신 복지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풍성한 영화제였습니다. 모두의 힘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지수 은별이의 힘이 모여, 아이들의 친구 미경 희선 민희 유경이의 힘이 모여, 은별이 어머님 아버님과 지수 어머님 아버님의 힘이 모여, 도움 주신 이웃 분들의 힘이 모여, 함께해준 관객 분들의 힘이 모여 아름다운 영화제가 완성 되었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일도 걱정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해낸 지수 은별이 멋있습니다. 덕분에 이웃들도 웃음 나는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함께한 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여름 밤의 따뜻한 기억으로 추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획단 강은별 시와 그림 | 영화제

많은 분이 영화제를 도와주셨다.

성공적으로 마쳐서 좋았다.

그래도 예상 밖의 일들이 아쉽다.

피자 빵 맛있다.



영화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화제 장소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행연습과 영화제 준비를 했습니다.

김초록 선생님과 이웃 분들께서 다 같이 스크린을 대신해줄 천을 달았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시면서 열심히 달아주셨습니다. 도와주신 이웃 분들과 김초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회를 볼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 바로 앞에서 사회를 보려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며 말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가장 걱정이 된 점은 여름이라서 7시라도 어두워지지 않아 ‘과연 영화가 보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상대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별이 어머니께서 다른 스크린을 빌려다 주셨는데…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래도 천보다는 잘 보여서 괜찮았습니다. 스크린 빌려다 주신 은별이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었을 텐데 와주신 모든 이웃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제 당일 날 도움을 많이 준 김유경, 이민희, 정미경, 정희선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영화제 단체 사진



영화제 마무리

감사하기

감사 준비

지수와 은별이에게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부탁드릴 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들어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고 다음에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감사로써 완성됩니다. 감사를 잘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방법'

감사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회사업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아이들이 감사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지수가 고마웠던 분들을 기억해 정리했습니다. 감자카페 사장님, 롯데리아 사장님, 은별이 부모님, 지수 부모님, 리 사무장님, 복지관 선생님, 영화 제 도와준 친구들, 선행연구 책 내준 친구들 등 도움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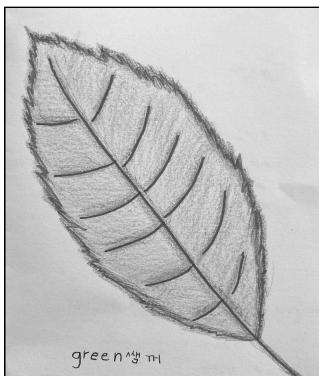
고마운 마음 전할 방법 의논했습니다. 찾아뵙고 감사드리기, 전화로 감사드리기, 편지로 감사드리기를 생각했습니다. 수료식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수료식 시간에 감사드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찾아뵙고 감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찾아뵙기 어려운 분끼는 전화로 감사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은별이는 노트북으로, 지수는 수기로 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밖을 명하니 보고 있어 무슨 생각 하냐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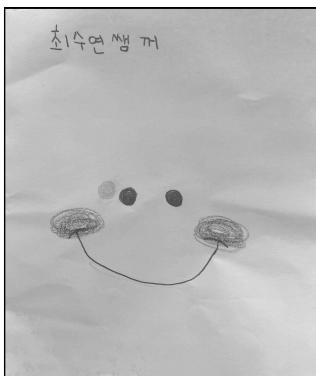
“초록색을 봐야 초록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요.”

담당자 김초록 선생님께 드릴 감사장을 초록색 풀을 보며 생각 중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른들은 그 의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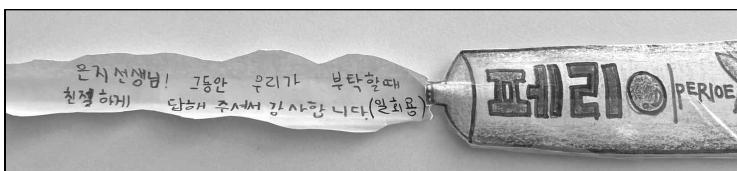
지수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감사장 만들었습니다. 치약 통을 짜면 치약이 나오듯 감사장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감사합니다.’ 글자가 나왔습니다. 지수의 만들기 실력이 대단합니다.



나뭇잎 모양 감사장



스마일 감사장



치약 모양 감사장

감사 진행

정성 들여 만든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한 담당자 김초록 선생님께는 직접 드렸지만 다른 복지관 선생님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근 후 보고 기뻐하길 바라며 사무실 책상에 고이 두었습니다.

인사 받아주신 롯데리아 사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쉽게도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직접 만나 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을 대신해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고마워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가.”

지수와 은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 듬뿍 얹어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인사하고 감사했을 뿐인데 배가 부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이들끼리 감저카페 사장님께 감사장 전하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빠진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동네 아는 어른이 하나둘 들어납니다. 웃으며 친절히 맞이해주신 롯데리아 직원 분, 감저카페 사장님 고맙습니다.

포스터를 수거하러 가면서 감사 인사했습니다. 온누리 빵집 사장님 찾아뵈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나도 시간 있었으면 가봤을 텐데, 가게 때문에…”

사장님께서 지수와 은별이를 알아보고 반겨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반겨 주신 사장님 덕분에 감사 인사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두 손으로 붙인 포스터를 같은 손으로 곱게 떼어냈습니다. 기억해주시고 반겨주신 온누리 뺑집 사장님 고맙습니다.

파리바게뜨 뺑집 찾아갔습니다. 이미 포스터를 떼어주셨지만 그래도 감사 인사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부탁드리러 갈 때와 같은 아르바이트생 분이 있으셨습니다. 온누리 뺑집 사장님과 같이 알아보시고 웃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인사했습니다. 부탁 들어주시고 함께 인사해 주신 파리바게뜨 아르바이트생 분 고맙습니다.

편의점 CU로 가던 중 이미 포스터가 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려야죠!”

감사의 매력을 느낀 걸까요? 이젠 아이들이 신나서 인사드리러 갑니다. CU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니, 꼭 안아 주셨습니다.

훈훈한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러 오니 그 모습이 예뻤을 것이고, 감사받고 웃어주는 어른을 보니 뿌듯한 마음 생겼을 것입니다. 인정이 절로 생깁니다. 사람 사는 사회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해준 지수 은별 고맙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숨어있던 동네 인정 꺼내주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 활동으로 어울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함께 이루고 누리며 서로 돋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 생태’를 살립니다. 「복지요결」 ‘사회사업 주안점’

앞으로 지수와 은별이는 인사 받아주고 부탁 들어주신 어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공손히 인사하고 부탁 감사한 아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인사하며 지내는 좋은 관계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겨운 사람살이 생태가 만들어집니다.

부모님께는 영상 편지로 고마운 마음 전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쑥스럽지만 정성 들여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상 편지를 본 부모님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그동안 부탁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까지 잘 마무리해준 지수 은별이 고맙습니다. 감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기획단 강은별 시와 그림 | 함께했던 감사

편집하고 공을 들여 만든 감사장

감사할 때에는 용기 있게 두근두근 다가갔다.

떨리고 긴장됐지만

하고 나니 뿌듯했다.

끝나고 먹은 빙수 맛있다.



기획단 문지수 글 | 감사합니다.

영화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감사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배우고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붙이게 허락해주셨던 온누리 빵집, 파리바게뜨, CU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빌려주신 은별이 어머님, 빔 마이크 빌려주신 아빠, 인사 받아주신 이웃 분들, 면접 장소 빌려주신 감저 카페 사장님, 영화제 도와주었던 친구들, 응원 격려해 주신 서부복지관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한 곳은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에 강주미라는 직원님께서 바쁘신데 우리의 인사를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화제가 끝나고 감사드리려 갔는데 아쉽게 그 직원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님께 감사장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데… 그 직원님과 강주미 직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공짜로 먹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더 맛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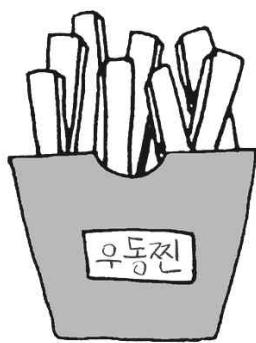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영화제 때 함께해준 관객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카페 사장님께 감사 인사



인사 후 받은 아이스크림



수료식

수료식 준비

준비 전 놀이

영화제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바로 수료식 준비를 하면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먼저 놀았습니다. 지난번 물들인 봉송아 색이 연하여 이번엔 인공봉송아 가루로 손톱을 곱게 물들였습니다. 서로의 손톱에 봉송아를 올려주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도 해주고 싶다며 불러서 함께했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은별이는 봉송아 물들이기를 할 때도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돼지 모양, 줄무늬, 점박이 등 은별이만의 네일아트를 완성했습니다. 톡톡 튀는 생각이 큰 강점입니다. 은별이가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준비 회의

한바탕 놀고 나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료식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감사했던 분들에게 감사 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자료를 만들어 수료식 활동을 발표하고 초대장을 만들어 수료식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접부터 수료식까지 아이들이 주가 되어 진행합니다. 저도 지수와 은별이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박하게 수료증 준비했습니다. 강점을 살려서 칭찬 감사할 것입니다. 당사

자와 지역사회가 빛나는 수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

수료식에 고마웠던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성 들여 초대장을 만들어 복지관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이들이 직접 전화 드려 초대했습니다. 수료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시간 인?(시간 있어요?)”

초대와 부탁이 익숙해졌는지 이전보다 수월하게 했습니다. 활동을 도와 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나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수료식 장소 대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훗, 선생님 없을 때 제가 다 해놨죠.”

이미 장소 부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역시 믿음직한 아이들입니다. 이젠 정말로 제가 빠질 때입니다. 아이들이 삶에 주인으로 살고,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사는 대정 마을은 더불어 살고 인정 있는 사회입니다. 걱정 없고 기대만 있습니다.

발표자료 제작

피피티로 수료식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정표를 보고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며 만들었습니다. 두 명이 돌아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발표도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은별이가 피피티에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을 추가했습니다. 외부 사진을 내려받아 넣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상당합니다. 지수가 은별이를 칭찬했습니다.

“은별이가 아래서 1등을 했구나!”

서로 칭찬 감사하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료를 완성한 후 피피티를 넘기며 발표하듯이 해보았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왔습니다.

일정 정하기

수료식 세부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전 경험이 있어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료식 순서에 감사하기도 넣어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하기, 소개하기, 활동 발표하기, 느낀 점 발표하기, 소감 나누기, 감사 인사하기, 끝인사 하기

수료식을 준비하던 날이 아이들과의 마지막 회의 날이었습니다. 뒤승승 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지수가 예쁘게 만든 하트모양 종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진짜 마지막이 실감 날 것 같아 수료식 날 달라고 했습니다. 곧 해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수료식 진행

‘우동찐’ 영화제 수료식 날입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복지관에 도착해 다과를 세팅했습니다. 배고풀 시간에 와주신 손님을 배려하는 예쁜 마음입니다.

사회자 김초록 선생님의 소개로 수료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피피티’로 활동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보고 계셔서 긴장됐는지 연습 때 보다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발표의 자리에서 있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지수 은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발표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영화제 당일 까지의 활동을 지수와 은별이만의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료식에 와주신 분들이 흐뭇한 미소로 경청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고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영화제 당일 까지의 활동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지수, 은별이가 영상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때로 잠시 돌아가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며 느꼈던 점을 발표했습니다.

“힘들어도요,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지수와 은별이의 짧은 소감에 담긴 의미를 잘 압니다. 그동안 힘든 부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의 도움으로 영화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값진 추억이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수료식에 와주신 분들이 칭찬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주인공 되어 칭찬 사위 받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몸을 베베 꼬지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칭찬 덕분에 더욱더 뿌듯한 마음 생겼을 것입니다. 칭찬해주신 관장님 과장님, 동료 다운이 고맙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한 명씩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받아 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성 들여 쓴 수료증 읽어주었습니다. 상황이 쑥스러운지 장난을 치던 은별이도 이내 집중하고 저의 진심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반짝이는 지수와 은별이의 눈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커서, 활동 가운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라서 눈물 났습니다. 수료증을 읽는 중에도 걱정해주는 눈을 보니 더 눈물 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성숙합니다. 눈으로 위로하고 안아 주던 지수 은별,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으로 고마운 마음 담은 깜짝 영상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한 날들을 회상하며 마지막을 슬퍼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선물해주어 고맙습니다.

함께한 손길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기획단 지수 은별

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아이스박스 제공해주신 지수 어머님 아버님

스크린 현수막 간식 구해주신 은별이 어머님 아버님

영화제 당일 진행 도와준 희선 미경 민희 유경

면접 장소 제공해주신 감저카페 사장님

하모체육공원 대여 안내해주신 대정읍사무소 직원 분

스크린 빌려주신 리 사장님

선행연구 책 써준 다인 연아 주애 다은 예지

포스터 부착해주신 온누리 빵집 사장님

포스터 부착해주신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생 분 사장님

포스터 부착해주신 CU 송악 도서관점 직원 분

스크린 설치 도와주신 동네 어르신

영화제 참여해주신 50여 명의 관객 분들

인사 받아주신 모닝글로리 사장님

인사 받아주신 가나상사 사장님

인사 받아주신 백화서점 사장님

인사 받아주신 동양컴퓨터 세탁 사장님

인사 받아주신 롯데리아 사장님

인사말 해주신 관장님

감사장 전해주겠다 약속해주신 롯데리아 직원 분

준비물 준비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복지관 선생님들

모두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우동찐’ 영화제,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도
와주신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며

실습생 수료사

2020년 여름, 서귀포시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모든 활동이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독 시간이 빨리 간 4주였습니다.

실습 전 저를 떠올려봅니다. 여러 문제로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 잘 해낼 수 있을지, 다른 실습생들과 선생님들께 해가 되진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가지고 면접 봤습니다. 지쳐있던 제가 지수와 은별이를 보니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제주에서라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 생겼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할 거면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 배웠습니다.

인사하기를 좋아했지만 무안한 분위기가 싫어 점점 꺼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글로 배우고 연구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쌓이고 인정이 생깁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할수록 쉬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젠 자취방 근처 아는 사람보다 복지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가며 인사했던 그렇게 됩니다.

인사하면서 또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빵 음료 아이스크림 등 아낌없는 주십니다. 그리웠던 동네 인정을 대정에서 느꼈습니다. 배고플 틈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사회사업의 가치와 방법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답고 사회다운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돋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쉽고 깊게 우울해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습 시작 전,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합숙했습니다. 동료들, 복지관 선생님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웃음 끊기는 날 없었고 힘들 땐 서로 위로와 응원해주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정주고 사랑하는 지수와 은별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때 묻지 않은 마음이라 더 소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니 제 마음도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마음 가는 대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그냥 믿자.’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기에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마음 품고 주변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렵니다. 대정에서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함께한 지수와 은별이, 동료, 선생님들, 대정 주민 분들 덕분입니다.

함께 웃고 울어준 동료들 고맙습니다.

인간 비타민 다은이 고맙습니다. 다은이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본인도 힘들면서 위로 공감해주고 곁을 지켜줍니다. 자기 일처럼 들어줍니다. 정작 본인은 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며 괜찮다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언젠가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은이 주변엔 다은이 같은 사람만 함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비타민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매력쟁이 민주 고맙습니다. 민주는 고민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고민도 잘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공유하는 느낌,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둘이 나눠 생각하니 더 쉽게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면 편하고 재밌습니다. 민주네 집에 놀러 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보니 민주의 넓은 마음 밭이 이해됩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민주. 그런 민주를 진심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민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귀여운 동생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우리의 청일점 남종이 고맙습니다. 남종이는 과묵해 보이지만 세상 장난기 많습니다. 여자 셋이서 열심히 놀려대도 다 받아주고 잘 어울려줍니다. 덕분에 즐겁고 재미있는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활동 가운데 힘들었

던 경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내준 덕분에 모두 함께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내주어 고맙고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가주어 고맙습니다. 남종이의 경험이 훗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할 동료가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곁에서 응원해주고 위로 격려해 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제 동료 이상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육지와 제주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로벌시대에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회 될 때 얼굴 보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달간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한 귀한 친구입니다. 실습이 끝나고도 귀한 관계 잘 유지합시다. 육지 가면 연락하시고, 제주 오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하게 해주신 신혜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값진 경험 했습니다. 숙식 제공으로 편히 자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 기회 주심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고 칭찬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저의 모습을 과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신경 써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훗날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유심히 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 김초록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가 힘들어할 때 마음을 읽고 달래주시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서 주셨습

니다. 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한 후, 막막한 순간이 생기면 시원한 슈퍼비전으로 고민 해결할 수 있게 도움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담당자이신 것이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운 실습 기간이었습니다.

실습하는 한 달 동안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좋다~” 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인지 셀 수 없습니다. ‘지금 딱 이대로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대정은 제게 제주의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동네,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곳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보고 싶습니다. 대정에서 받은 사랑, 잊지 못할 것입니다. 떠올리면 웃음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어 고맙습니다. 다시 볼 그날 기다립니다. 2020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하길 참 잘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수료증 | 담당자 김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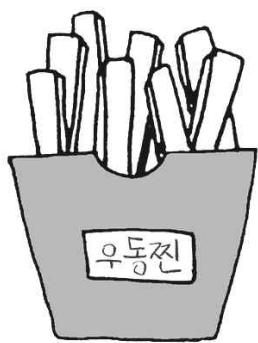
한 달 동안 한여름 뜻자리 영화제 기획단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최수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글로 적어 보려고 합니다.

한여름 뜻자리 영화제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와 은별이와 함께 한여름 뜻자리 영화제를 잘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지수와 은별이와 지내면서 늘 밝은 웃음으로 함께해주어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기획단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기획단 친구들의 자주성을 길러주어서 감사합니다. 기획단 친구들을 안아 주고 격려해 주어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해주어 감사합니다. 발바닥이 단단해지는 사회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기획단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어색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기획단 친구들과 첫 만남을 잘 이루어줘서 담당자인 저로서 뿌듯했습니다.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든 해보려는 선생님의 열정에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수와 은별이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지수와 은별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지수와 은별이를 생각해주시고 태양보다 뜨거웠던 우리들의 추억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폭삭 속았습니다.(매우 수고했습니다.)



마무리

응원 글

동료 실습생 흥남종

먼저 그동안 원고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최수연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겠다는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선생님의 의지와 도전에 격려를 보냅니다. 비록 제가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한 달 남짓이지만 제가 옆에서 바라본 선생님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고 의지가 되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한 한 달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께서 단기사회사업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글로써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대로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 단기사회사업 경험을 나눔으로써 저 또한 소중한 기회와 경험을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글을 읽는 독자 분들이 저희가 나누었던 소중한 경험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선생님의 마음이 선생님의 글로써 모두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1호 팬이 되겠습니다!”

지난여름 제가 선생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출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과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의 제1호 팬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동료이자 팬으로서 선생님이 나아가는 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서 저의

본보기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선생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동료 실습생 정다은

책을 발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책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으신 수연 선생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직접 축하하고 싶은 마음은 군뜩 같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축하를 전합니다.

함께 숙박하며 실습하는 동안 수연 선생님은 항상 단기사회사업에 대해 생각하며 저에게 단기사회사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단기사회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연 선생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셨던 말입니다. 그런 걱정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만큼 저는 수연 선생님의 단기사회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수연 선생님이 맡은 단기사회사업이었기 때문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선생님의 노력과 애정덕분에 준비부터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같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본받을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느끼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생생하게 느끼며 배울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하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다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멋지게 빛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에게 ‘인간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붙

여주신 것처럼 항상 옆에서 격려하며 박수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수연 선생님이 힘들면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 실습생 김민주

2020년 수연 선생님을 만난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바뀌고 수연 선생님 책이 나온다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아직도 수연 선생님의 수료사를 읽으면 눈물이 난답니다.

수연 선생님 책 출간을 축하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축하파티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 아쉬울 따름입니다. 수연 선생님이 이번 여름 어떻게 보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은별이와 함께 영화제를 준비하고 실행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수연 선생님이 지수, 은별이를 위해 칼림바 연습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연습과 준비를 했던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내내 듬직한 만언니 역할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즐겁게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들어주고, 머리 맞대어 함께 고민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연 언니, 그동안 고생했고 고마웠어요!

맺음말

기획단 강은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새콤달콤했던 피자 빵입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맛있게 먹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고 책을 쓸 때도 함께 한 실습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지수 언니와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뿌듯합니다.

영화제가 끝난 후, 책을 쓴다고 할 때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글도 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줄글이 아닌 시로 쓰게 되어 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책이 나오면 “어머! 내 글이 책이 됐네. 신기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끝나서 슬픕니다.

기획단 문지수

별써 마지막 맺음말을 쓰는 날입니다. 먼저 영화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영화제 당일입니다. 사회를 보면서 실수를 많이 하여 걱정되었는데 그래도 잘 끝내서 기쁩니다.

이번 영화제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웃들과 인사하고 부탁도 해본 점이 좋았고, 영화제 당일 날 사람들이 와주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영화제를 한다면 그땐 코로나가 끝나길 빌며 좀 더 멋있고 진짜 영화관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글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작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책에 나온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더니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책이 나온다면 영화제 동안 인사하고 부탁했던 이웃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실습생 최수연

초록빛의 단단했던 열매가 노랑과 주황 사이 그 어디쯤의 색을 띠며 이불 속 말랑말랑한 행복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사업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며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글을 보며 그때의 낭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메모지 세 장 붙였습니다. ‘감사함’, ‘소박함’, ‘겸손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동찐’ 영화제를 통해 얻은 가치입니다. 잊지 않고 살기 위해 매일 보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책은 영화제 기획단 아이들과 함께 쓴 책입니다. 매주 비대면 책모임으로 만나, 언제 어떤 글을 쓸지 계획하고 기록했습니다. 약 2달 동안 10번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등 일상대화를 나누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꼭 함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계획한 주제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저의 기억을 합치니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아이들이 떠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본 후, 어떤 내용의 글을 쓰면 좋을지 의논하고 각자 기록했습니다. 초반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던 아이들이 여러 번 하다 보니 척척 해냈습니다.

지수는 줄글로 기록하였고, 은별이는 시와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각자 의 방식으로 집중하여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록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말을 아꼈고, 카메라를 킨 채로 기록을 수정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쓴 글을 함께 보며 수정, 보완했습니다.

글쓰기가 아이들에게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재미를 위해 할로윈 분장을 하고 만난다거나, 일찍 마치는 날엔 만들기를 하는 등 작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이들에겐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저를 통해 ‘함께’의 힘을 배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마무리 짓기 어려웠을 책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였기에 해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힘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영화제 기획단으로 활동하며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리 해본 선배로서 진행과정과 방법을 알려주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교의 역할로 함께 활동해도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수와 은별이의 자주성과 새로운 기획단 아이들의 자주성, 지역사회의 공생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격려해 주신 신혜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모든 과정이 과장님의 열정 없이는 시작도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출판과 글 퇴고 도와주신 김세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반적인 틀을 잡고 글 다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글 퇴고 도와주신 권대익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잘 하고 있다는 말이 큰 위로였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따듯한 선배이고 싶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김초록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을 나누는 것 만으로도 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이 단순히 졸업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음에 감사합니다. 소박함의 위대함을, 감사함의 기쁨을 알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사회사업가 김초록

이 기록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습생 최수연 학생과 기획단 문지수, 강은별 친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뤄낸 기록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영화제를 통해 일어난 변화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한 활동은 영화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계획 했습니다. 면접 전날까지 세 번 정도 만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 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전날 어르신들과 면접 준비를 하려

고 모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어르신 나들이는 다음으로 기약했습니다. 자주성과 공생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활동을 고민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영화제 활동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여름 기획단으로 활동한 지수와 올해 겨울부터 활동한 은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연락 했을 때 지수가 “좋아요! 은별이랑 학원 끝나면 복지관으로 갈게요.”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와 은별이가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지수와 은별이에게 이번 면접은 복지관이 아닌 지역에서 면접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도 거절 하지 않고 “좋아요.”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기획단 경험이 있는 지수가 은별이를 이끌어주며 영화제를 이루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수와 은별이는 제 기대보다 더 멋지게 서로를 이끌어주며 영화제 활동을 이루어냈습니다.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지수와 은별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내가 진짜 대단해요!” 하는 말과 “이 영화제는 우리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영화제 활동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그 가운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둘레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며 지역사회의 인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아웃인정 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수, 은별, 수연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이번 여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서귀포 대정마을 영화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단기사회사업 실습기록

초판 1쇄 2021.1.11.

지은이 최수연 문지수 강은별



펴낸곳 구슬꿰는실 펴낸이 김세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9 2층 책방, 구슬꿰는실

출판사신고번호 제2020-000105호

전화 02-6368-7949

도서출판 구슬꿰는실 coolwelfare.org | sea@welfare.or.kr | instagram : @socialwork_books

ISBN 979-11-91332-01-8



둘레 생명과 더불어 삶

이 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회사업 하자는 뜻을 담아 단아한 멋이 나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아끼려고 간지나 책날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문단 간격도 조금 즐겁게 편집하여 종이 사용을 줄였습니다. 읽을 분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책을 내면서도 이 글이 나무의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중심에 서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사회사업이란 뜻을 책 만드는 과정에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표지 스노우지 250g, 내지 그린라이트 100g